

日帝下 朝鮮에서의
國家總力戰體制와 朝鮮人の 生活
－ ‘皇國臣民의 鍊成’을 中心으로 －

鄭 在 貞

日帝下 朝鮮에서의 國家總力戰體制와 朝鮮人の 生活

- ‘皇國臣民의 鍊成’을 中心으로 -

鄭 在 貞

- | | |
|--------------------------|------------|
| I. 머리말 | 3) 勞動者 |
| II. 國家總力戰과 ‘鍊成’의 人間像 | 4) 農民 |
| 1. 國家總力戰의 人的 資源論 | 5) 女性 |
| 2. ‘鍊成’의 皇國臣民像 | 6) 官公吏 |
| III. 皇國臣民의 ‘鍊成’과 朝鮮人の 對應 | 3. 朝鮮人の 對應 |
| 1. ‘鍊成’運動의 全一的 展開 | 1) 協力 |
| 2. ‘鍊成’運動의 部門別 深化 | 2) 同化 |
| 1) 學生 | 3) 逸脫 |
| 2) 青年 | 4) 저항 |
| | IV. 맺음말 |

I. 머리말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日帝下 朝鮮에서의 國家總力戰體制와 朝鮮人の 生活에 대한 연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중일전쟁의 勃發부터 일본의 敗戰에 이르는 국가총력전체제기(1937.7-45.8)에 일본이 조선에서 추진한 물적·인적 자원의 동원과 황국신민화정책의 실상 등에 대해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¹⁾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각 事案에 대한 종래의 연구가 개별적·평면적으로 이루어져, 조선 총독부의 정책과 조선인의 생활을 有機的으로 관련시켜 이해하는 데는 조금 未洽하다는 점이다. 황국신민화 정책에 대한 연구만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총력전체제와 어떤 관련 아래 추진되고,

1) 국가총력전하의 조선사회를 다룬 주요 單行本만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宮田節子, 1985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未來社; 최원규 엮음, 1988, 《日帝末期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출판사; 김민영, 1995, 《일제의 조선인노동력수탈 연구》 한울아카데미; 崔由利, 1997,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研究》 국학자료원; 김인호, 1998,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연구》 신서원; 2000,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郭健弘, 2001, 《日帝의 勞動政策과 朝鮮勞動者-1938~1945-》 신서원; 방기중 편, 2004,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혜안 등.

내선일체가 지향하는 황국신민의 궁극적 人間像이 무엇이며, 그와 같은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어떤 방법을 驅使했는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충분하지 않다. 특히 전쟁이 막바지에 치달았던 식민지 말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국가총력전체제의 황국신민화정책과 조선인의 對應樣相을 ‘鍊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 용어는 1938년을 전후하여 南次郎 총독이 입에 올리기 시작하여, 전시체제가 강화되어감에 따라 그 빈도가 증가하다가, 국민학교 제도의 시행(1941.4.1)에 즈음해서는 최고의 教育目標가 되고, 小磯國昭 총독의 취임(1942.5.29) 이후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국가총력전에 적합한 人間型으로 改造하는 至上의 정책목표가 되어 一世를 風靡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朝鮮靑年特別鍊成令을 발포하고(1942.10.14), 조선총독부에 鍊成課(1942.11.1)와 國民總力朝鮮聯盟에 鍊成部(1942.11.4)를 설치했으며, 노동자·농민·여성·官公吏 등의 연성기관을 속속 만들었다. 朝鮮人の 연성이 戰況의 악화에 照應하여 全一的으로 확산되고 部門別로 심화되었던 것이다.

연성이라는 말은 원래 일본에서 교학쇄신평의회가 교학쇄신을 총괄하는 용어로서 만들어(1936.11) 戰時教育의 핵심용어로서 정착시켰다. 그 후 연성의 개념은 무한대로 확대되어 국가총력전에 적합한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교학사상으로 확립되고, 마침내 국가정책과 국민생활의 全般을 규제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²⁾

조선총독부도 일본의 상황에 副應하여 연성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였다. 다만 조선에서의 연성은 조선인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조선인으로 鍊磨育成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든다는 뜻이었다. 그것도 단순한 일본인이 아니라, 천황을 위해 물자는 물론이고 신체와 마음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일본인, 즉 황국신민으로 改造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가정·학교·부락·단체·직장·공장·군대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조선인의 總力戰的 資質을 끊임없이 鍊磨育成하는 정책으로서 ‘皇國臣民의 鍊成’을 至上의 목표로 내걸었던 것이다.

‘황국신민의 연성’이라는 말이 조선에서 猛威를 떨친 기간은 5-6년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조선인은 그 짧은 기간 동안 국가총력전에 적합한 인간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했다. 그리하여 해방 이후 ‘황국신민의 연성’이라는 말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지만, 그 그림자는 오늘날까지도 남북한에 짙게 남아 있다. 따라서 국가총동원과 조선인의 생활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內鮮一體라는 靜態的 개념보다는 ‘황국신민의 연성’이라는 動態的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 倉澤剛, 1944, 《總力戰教育の理論》, 目黒書店, 269쪽; 竹下直之(文部省 圖書監修官), 1943, <鍊成の本義> 《道義の世界觀と教育》, 青葉書房, 168쪽; 교학쇄신훈동은 國體明徵을 학문과 교육에 도입한 것으로서, 祭祀·政治·教學은 근본에서 一體不可分이고, 학교는 國體에 기초한 修鍊施設이어야 하며,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적 수련은 躰·實踐躬行·修養·鍛鍊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일본의 연성에 대해서는, 寺崎昌男·戰時下教育研究會編, 1988, 《總力戰體制と教育-皇國民<鍊成>の理念と實踐》 東京大學出版會를 참조할 것.

II. 國家總力戰과 ‘鍊成’의 人間像

1. 國家總力戰의 人的 資源論

국가총력전은 문자 그대로 국가의 모든 자원, 국민의 모든 능력을 결집하고 발휘하여 전쟁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총력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명목 아래 물적·인적 자원의 확충·개발·동원·배치 등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가했다. 일본과 그 지배를 받은 조선에서는 국가총동원법의 시행(1938.5.5) 이후 戰爭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국가총력전체제도 급격히 강화되어갔다.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 발발(1937.7.7) 직후부터 조선인에게 국가총력전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南總督은 ‘國民精神作興運動과 半島民衆의 時局認識’이라는 라디오방송연설(1937.11.13)에서 國家總力戰과 국민의 覺悟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근대의 싸움은 砲火가 서로 마주보는 것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國力과 國力의 싸움이고, 戰場의 第一線에 있는 將兵만의 싸움이 아니며 國家總動員을 가지고 하는 싸움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산업이든, 교육이든 하나같이 승패에 관계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國民皆兵의 정신은 오직 총검을 손에 쥔 군인만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銃後の 국민도 역시 第一線의 장병과 같이辛苦하고 刻苦하다는 각오로써, 그 생업에 精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³⁾

南總督은 일본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전쟁은 정치·경제·산업·교육 등,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싸우는 총력전이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국민도 전방에서 싸우는 장병과 같이 군인정신으로 무장하여 生業에 刻苦勉勵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국가총동원정책은 국가총동원법이 개정된(1940.5)이후 더욱 강화되어, 조선의 모든 자원은 능률과 동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시체제로 재편되어갔다.⁴⁾

그런데 국가총력전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은 물자와 같이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道具型的 인간이었다. 1930년대 중반, 일본 企劃院 調査官 美濃口時次郎은, 인적 자원의 量과 質은 一國社會의 存立懸案에 도움이 될 만한 능력, 즉 국가총력전에 유용할 정도의 인구규모, 신체강건, 정신자세, 기술수준, 국방실력 등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주장했다.⁵⁾ 그와 같은 인적 자원의 구체적인 모습은 일본 文部省이 간행한 《國體ノ本意》(1937)나 《臣民ノ道》(1941) 등에 잘 나타나 있었다. 그들은 고도의 군사력과 노동력을 지탱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과학적·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를 버려 천황에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따라서 천황제를 기반으로 하는 日本型 국가총력전이 요구하는 인적 자원은 八

3) 水野直樹編, 2001, 《朝鮮總督諭告・訓示 集成》 5 綠蔭書房(이하에서는《集成》 5로 略稱함), 69~70쪽

4) 姜柄順, 1941.5, <국가총동원법 개정에 대하여> 《조광》 제7권 5호, 58~65쪽; 下川春海, 1941.11, <臨戰体制と三つの國民運動> 《朝鮮行政》 229, 2~5쪽.

5) 美濃口時次郎, 1941, 《改訂増補人的資源論》, 八元社, 303~304쪽.

絃一字・肇國精神이라는 聖戰 이데올로기에 투철한 皇國臣民이 典型이었다.⁶⁾

조선총독이나 그 주변 사람이 입에 올렸던 인적 자원의 개념도 일본의 그것과 유사했다. 南總督은 美日開戰 이후 열린 道警察部長會議(1942.5.4)에서 人的 資源의 강화와 皇國臣民의 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의 時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이 극히 긴요하고, 물적 자원의 개발 충실 또한 究極하는 바 인적 자원의 강화에 의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 국민적 훈련에 중점을 두고 국가의 요청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이들을 연성하여 심신 모두 건전한 皇國新民으로 육성할 것을 기대하고 싶다.⁷⁾

南總督은 총력전을 치르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데, 이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적 자원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적 자원의 강화는 국가의 요청에 곧바로 부응할 수 있는 국민 만들기, 즉 皇國新民의 연성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小磯總督의 시기는 전시체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臨戰體制라는 용어가 신문·잡지·강연뿐만 아니라 일상회화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다.⁸⁾ 그리하여 인적 자원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했다. 그는 도지사회의(1943.4.6) 석상에서, 決戰必勝을 위해 국민은 性·연령·직능의 구별을 초월하여 각자의 능력을 끝까지 傾倒해 武力戰·生産戰·思想戰에 떨쳐나설 것을 촉구했다.⁹⁾ 그리고 기자단과의 정례회견(1944.2.9)에서는, 조선인 2500만은 일본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조선인의 힘이 강하느냐 약하느냐에 따라 戰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조선인은 絶對至命으로 국가총력전에 참가하라고 역설했다.¹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조선인은 국가총력전에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아니었다. 조선인은 일본인과 혈연·역사·문화·능력 등이 너무 다른데다가, 천황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 '鍊成'의 皇國臣民像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을 국가총력전에 적합한 인적 자원으로 개발하고, 또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다. 南總督은 중일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열린 도지사회의(1938.1.22) 훈사에서 조선통치의 목표가 '半島の 日本化' 즉 '內鮮一體의 具現'에 있다고 천명하고,¹¹⁾ 그 방법으로서 육군특별지원병령과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했다. 그는 이에 즈음하여 발표한 諭告(1938.3.4)에서,

6) 文部省, 1937, 《國體ノ本義》, 3쪽, 32~35쪽

7) 《集成》 5, 282쪽

8) 下川春海, 1941.11, <臨戰体制と三つの國民運動> 《朝鮮行政》 229, 2~5쪽

9) 水野直樹編, 2001, 《鮮總督諭告・訓示 集成》 6 綠・書房(이하에서는 《集成》 6으로 略稱함), 193쪽

10) 《集成》 6, 492쪽

11) 《集成》 5, 26-29쪽

조선통치의 목표는 이 지역 동포로 하여금 정말로 황국신민으로서의 본질에 투철하고, 내선일체와 함께 治平의 기쁨에 의지하여 東亞의 일에 대처하는 데 있다. … 新東亞 건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帝國의 重責은 더욱더 國民資質의 醇化向上을 필수의 時務로서 계속해야 한다. 즉 이 國勢에 따르고 이 世運에 응하는 길은 國體明徵, 內鮮一體, 忍苦鍛鍊의 3대 教育方針을 끝까지 貫徹하여 大國民다운 志操 信念의 練成을 基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¹²⁾

라고 역설했다. 南總督은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어 내선일체를 실현하는 것이 통치의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는 國體明徵・內鮮一體・忍苦鍛鍊의 교육방침에 의거하여 조선인의 국민적 자질을 練成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練成’은 곧 ‘鍊成’이었다. 그는 도지사회의(1938.4.19) 훈사에서 자신의 5大政綱(國體明徵, 鮮滿一如, 教學振作, 農工竝進, 庶政刷新)과 內鮮一體를論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반도의 국민사상의 확립은 現狀으로써 만족할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철이 가장 뜨거워졌을 때 이것을 두드린다> 와 같이, 이 시대 흐름의 순조로운 機運을 파악하여 더욱 유감이 없을 때까지 이의 陶冶鍊成을 행하고, 널리 皇國臣民으로서의 자각을 배양하는 위에 한층 더 窮理努力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국가총동원법은 장래 위급한 국면에 대비하는 국가적 規矩이고, 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여기에 혼을 집어넣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¹³⁾

南總督은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육성하는 방법을 쇠를 불에 달궈 단련하는 것에 빗대어 陶冶鍊成이라 불렀다. 조선총독부가 황국신민의 연성을 制度的으로 뒷받침한 것이 국가총동원법이었고, 이것을 자각・실천하도록 교육・선전한 것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었다. 南總督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후신인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총재 취임 인사말(1940.10.16)에서도, 高度國防國家 완성의 요소로서 국민사상의 통일, 국민훈련의 철저, 생산력의 극도 증강을 들었을 만큼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 연성을 중시했다.¹⁴⁾

南總督이 조선통치의 목표로 내세운 내선일체라는 語義는 원래 조선인과 일본인이 形도 心도 血도 肉도 一體가 된다는 것이었다.¹⁵⁾ 그렇지만 실제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융합하여 중간형의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이 일방적으로 일본인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조선에서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일본에서와 같이 舉國一致・堅引持久・盡忠報國 이외에 ‘一視同仁에 기초한 內鮮一體화와 皇國臣民化의 철저’를 또 하나의 목표로 내세운 것은 이 때문이었다.¹⁶⁾ 조선인에게 내선일체의 이념을 선전하고 다녔던 조선총독부 警務局 保安課長 古川兼秀는 夫餘에서 열린 全朝鮮指導者講習會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선일체의 本義는 新附의 조선동포로 하여금 名實 모두 완전히 총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조선인 쪽에서 말하면 진짜 일본인이 된다는 점이다. … 내선일체의 방침은 조선인에게 유일한 희망에 찬 지도원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관념과 이론상의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모

12) 《集成》 5, 5-7쪽

13) 《集成》 5, 35-55쪽

14) 《集成》 5, 422쪽

15) 朝鮮總督府, 1940.3, 《朝鮮に於ける國民精神總動員》 101쪽

16) 위의 책, 31쪽

두 생활상에 가장 불가분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황국신민연성의 실적이 오름에 따라 조선인의 사회적 지위는 필연적으로 향상될 것이고, 또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에 임해서도 동아의 타민 족과는 달리 일본인으로서는 그 中核體가 되고 지도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등 장래에 대한 광명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¹⁷⁾

古川은 내선일체의 참 뜻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에 있고, 조선인은 일상의 연성을 통해 어느 수준의 황국신민이 되느냐에 따라 장래 동아시아에서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총독부 관계자가 말하는 내선일체와 황국신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만, 굳이 선후를 따진다면 진정한 황국신민이 되어야만 내선일체의 실효를 거둘 수 있고, 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지도부는 이 점을 좀더 분명하게 제시했다.

내선일체의 근본전제는 황국신민화에 있고, 私心을 버려 公에 봉사하고 참으로 폐하의 백성이라는 자각에 투철한 것이 모든 제도상의 一體化의 先決問題이다. 이 근본전제를 躬行實踐하지 않고 쓸데없이 제도상의 평등을 요구하고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궁극의 이념을 비방하는 것과같은 일은 정말로 非皇國臣民의인 태도로써 純眞한 내선일체운동을 저해하는 蠱毒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서 內鮮一如의 황국신민을 鍊成하는 데 임해서는 民度の 향상, 교육의 보급, 인격의 도야를 필요로 하는 것은 논할 필요도 없는 바이다.¹⁸⁾

위에서 보듯이, 조선인이 滅私奉公하는 천황의 백성 즉 황국신민이 되어야만 내선일체를 이룩할 수 있는데,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어 내선일체에 이르도록 만드는 방법이 바로 연성이었다. 小磯총독은 臨戰態勢에 돌입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이 더욱 절박해지자 南총독보다도 황국신민의 연성을 훨씬 더 중시했다. 그는 시무식 훈시(1943.1.4)에서 수양연성의 철저적 강화, 生産戰力の 決勝的 증강, 庶政執務의 획기적 쇄신을 3대 통치방침으로 천명하면서,¹⁹⁾ 특히 황국신민의 鍊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皇國臣民으로서의 鍊成 없는 徵兵制, 國體의 본의에 투철하지 못한 義務教育制 같은 것은 魂 없는 骸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국가총력전인 근래 전쟁의 특징으로서, 思想戰, 經濟戰은 금후 더욱 치열을 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志操를 지키는 것을 굳건히 하고 필승의 신념을 움켜쥐어 털끝만큼도 적이 넘볼 것 같은 정신적 間隙을 없게 하고, 금년 불행하게 일어난 旱水害로 인한 식량 부족을 비롯하여, 對米英決戰 완승을 위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여러 물자의 부족함을 인내하고, 정신·육체 양면의 勞務를 강화하여 다음에 말하는 生産戰力の 증강을 급속히 敢行 充實하기 위해서도, 황국민 연성의 즉시 철저와 이에 따른 관민 모두의 純乎한 臣道の 실천이 절대불가결의 조건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²⁰⁾

小磯총독은 자신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와 의무교육제의 실시조차도 황국신민으로서의 연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물며

17) 國民總力朝鮮聯盟防衛指導部, 1941.6, 《內鮮一體ノ理念其ノ具現方策要綱》(禁轉載並一般配付), 1-8쪽

18) 위의 책, 6쪽

19) 《集成》 6, 124쪽; 牧山春植, 1943.4, <徵兵과 연성> 《조광》 제9권 4호, 56쪽

20) 《集成》 5, 181-182쪽

국가총력전에 필요한 물자와 노동력의 동원이나 生産戰力の 증강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황국신민의 연성을 통한 臣道の 실천이 美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국신민의 연성을 조선총독부 정책에 畫龍點睛의 實을 보장하는 절대불가결의 요소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면, 황국신민 연성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것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것인가? 조선인의 연성운동을 一絲不亂하게 추진하고 있던 國民總力朝鮮聯盟의 運動要綱은 황국신민 연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황민연성의 本旨은 황국신민으로서의 心魂을 기르고, 敢然히 國事に 참여하는 강건한 심신을 연마하고, 億兆一心 大和協力하여 道義生活의 실천에 邁往하는 데 있다. 두루 國體本義의 透徹을 꾀하고, 특히 청소년의 연성에 힘쓰고 함께, 皇民의 어머니인 婦人의 자각을 촉진하여 皇國家風의 확립에 노력하고, 職場의 연성을 통하여 職域奉公의 國風을 일으키고, 각 계층의 지도자를 연성하여 率先垂範의 實을 올리고, 行을 중심으로 하는 연성과 아울러 부단히 국민에게 道義實踐의 생활훈련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²¹⁾

위의 요강에 따르면, 황국신민의 연성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國體本義에 투철한 훈련을 통해 황국신민으로서의 剛健한 心魂과 육체를 길러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氣風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했다. 여기서 말하는 국체본의는 皇道精神・肇國精神과 같이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이루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였다. 그런데 조선인은 이렇게 어렵고 특수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국민운동뿐만 아니라 신문・잡지・방송 등을 통해 황국신민 연성의 참뜻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만 했다. 조선인이 주요 구독자였던 《조광》의 특집기사는 皇道精神・肇國精神・國體本義와 연성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황도정신이란 肇國 이래의 國體精神으로서 밖으로는 八紘一宇의 정신이요, 안으로는 君民一體의 정신이다. 팔굉일우란 全世界의 一家主義로서, 천하의 각국이 각각 그 處할 바를 얻게 하여 共存共榮을 도모하는 것이니, 이것은 西洋流의 弱肉強食의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 帝國의 聖戰은 실로 이 팔굉일우의 大精神으로서 東亞 諸民族을 해방하여 각각 그 처할 바를 알게 하자는 것이다. 군민일체란 皇室과 國民이 一體임을 말하는 것이니, 군민의 관계는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다. 帝國의 최고원리는 실로 이 독특한 군민관계에 있는 바, 歐美流의 權利義務關係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것이 곧 제국의 肇國精神이요 國體本義인 것이다. 鍊成이란 국민이 이 국체본의를 투철히 체득하여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연성을 통하여 국민은 대동아전쟁이 聖戰인 所以를 철저히 깨달을 것이요, 성전에서 필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滅私奉公의 一念에 불타 오직 赤子로서의 本分을 발휘하는 것이 臣民의 道理임을 절실히 깨달을 것이다.²²⁾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에게 皇道精神・肇國精神・國體本義를 체득시키기는 것을 연성의 최고목표로 삼았다. 이의 실행을 위해 小磯총독 시기에는 조선총독부에 鍊成課와 皇國修鍊院, 국민총력조선연맹에는 鍊成部를 설치했다.

그렇다면, 조선총독부가 연성을 통해 만들어내려는 황국신민의 구체적 모습은 어떤 것인가?

21) 國民總力朝鮮聯盟, 1943.9, 《國民總力運動要覽》 66-75쪽

22) <卷頭言 鍊成의 봄> 《조광》 제9권 3호, 1943.3, 15쪽

國民總力朝鮮聯盟 鍊成部에서 연성운동을 陣頭指揮한 別府蒼水の 글을 통해 연성의 意義와 황국신민의 인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神이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하는 3천년 역사를 가진 世界無比의 국가이다. 이 국체와 이 역사 속에서, 더구나 大東亞戰爭이라는 古今 未曾有의 聖業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은 일본인이라는 자각에 서서 황국이 더욱더 번영하기 위해 殉忠의 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위대한 성업을 위해 대동아전쟁을 치르고 있는 일본인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면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현재의 일본인은 본래의 일본인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본래의 일본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대동아 盟主로서의 긍지와 영예를 짊어질 수 없다.

본래의 일본인의 모습은 古事記, 日本書紀, 萬葉集 등의 역사 속에 明記되어 있다. 본래의 일본인은 일체를 바쳐 오로지 천황을 위해 終始했다. 신민의 생활은 단지 천황에 봉사하기 위해서만 존재했다. 경제도, 산업도, 예술도 모두 그러하다. 천황을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鴻毛의 가벼움으로 여겼다. 일체의 것은 단지 천황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인민은 눈곱만큼도 私利私慾이 없었다. 이것이 일본인의 본래 모습이었다.

그런데 현재의 일본인은 明治, 大正, 昭和를 지나는 동안 자유주의나 개인주의 혹은 사회주의 등, 일본사상과는 氷炭처럼 서로 맞지 않는 敵性國家의 사상에 감염되어, 본래의 모습을 不知不識間에 잃어버렸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私利를 추구하고, 사유재산의 絶對 神聖을 말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국가를 무시하여 돌보지 않는다.

비록 법률이 일본제국 臣民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면에서의 일본인이고, 본래의 일본인은 아니다. 법규가 일본인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정신이 일본인답지 않은 자라면 꼭 김빠진 맥주와 같은 것이다. 일본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뿐, 일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존재이다. 아니, 도움이 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해를 끼치는 자이다.

이 김빠진 맥주를 다시 채움으로써 본래 맥주로서의 價値를 갖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연성이다. 일본인은 본래 누구라도 일본인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자질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발휘하지 않고 언제 발휘할 것인가? 大東亞戰爭의 聖業을 앞에 두고 언제까지 김빠진 맥주로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연성의 意義는 정말로 중대한 것이다. 있어야 할 가치존재로 만드는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연성이다.

연성은 왜 필요한가? 대동아전쟁 그 자체 때문이다. 모든 국민의 일체 생활이 이 한 가지 일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연성도 이 대동아전쟁에 표적을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연성을 통하여 국민 생활의 일체를 대동아전쟁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 한 사람의 마음속에라도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사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사상이야말로 최대의 利敵性이고, 국민으로서 가장 배척해야 할 바인 것이다. 정치도, 산업도, 경제도, 문화도, 기타 국민 생활의 일체도 연성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 정말로 있어야 할 일본의 모습으로 되어 대동아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자의 동원이든, 노동력의 동원이든, 모두 일본적 가치를 부여하는 연성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그림의 떡처럼 진정한 효과를 거두지 못 할 것이다. 단지 형식적으로 수량을 채워 동원하더라도, 그것은 김빠진 맥주를 모아 늘어놓은 것처럼 아무런 효과도 없다. 연성은 당면한 국민생활 일체를 정말 있어야 할 일본의 모습으로 만듦으로써 대동아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태세정비의 계기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연성이라고 하면 深山幽谷의 寺院이라든가,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道場이라든가, 그것과 유사한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河水나 海水에 목욕함으로써 이룩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그러한 神社의 강당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혹은 사원을 이

용하고, 또 淸淨한 海水나 河水에 목욕하는 것은 연성의 효과를 올리는 방법임에 틀림없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연성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연성은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는 사이, 즉 언제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산업인은 공장이, 관리는 관청이, 상인은 상점이 연성의 도장이다. 즉 일상생활 그 자체가 연성의 과정인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과거 수백년에 걸쳐 美英이 아시아에 심어놓은 자유주의·개인주의라는 허물·오물을 불식하기 위해 대동아전쟁이라고 하는 古今 未曾有의 祓禊를 강행하고 있다.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해 과거의 非日本的 허물과 오물을 모두 청산하기 위해 스스로 영혼과 육체를 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禊注坐臥, 一舉手一投足の 사이에 항상 연성하고 祓禊해야 한다.²³⁾

장황하기는 하지만, 別府의 글은 조선총독부가 추진하고 있던 황국신민화 정책과 그것의 실행 방법으로서의 연성의 意義를 알기 쉽게 풀어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연성이란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인간개조이고, 그로 인해 창조되는 황국신민이란 영혼과 육체는 말할 것도 없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천황을 위해 바치는 진짜 일본인이라는 것이다.²⁴⁾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젖은 일본인에게는 황국신민의 연성이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인의 아이덴티티 안에서 추진된 同種變移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희박한 조선인에게 황국신민의 연성은 전혀 생소한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인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일본인, 그것도 역사적 전통을 體現한 본래의 일본인으로 재창조되는 異種變改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인의 연성은 다음에 살펴보는 것처럼 강력하고 혹독할 수밖에 없었다.

III. 皇國臣民의 ‘鍊成’과 朝鮮人の 對應

1. ‘鍊成’運動의 全一的 展開

조선총독부가 全一的으로 추진한 황국신민의 연성은 법령·제도·운동 등의 모든 통치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全貌를 밝히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전국에서 一齊히 거행된 鍊成日 행사(그 系譜는 愛國日·興亞奉公日·大詔奉戴日·鍊成日 등으로 이어짐)에 초점을 맞추어 연성운동의 전개과정을 개관하고자 한다.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 조선중앙정보위원회를 만들고(1937.7.22),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愛國日 행사를 거행하도록 했다. 당시 일본에도 없던 애국일 행사는 학교가 먼저 1937년 9월부터 매월 6일에 실시하고, 같은 해 11월부터는 관공서·회사·은행·공장·각종 단체와

23) 別府蒼水, 1943.3, <鍊成に就いて> 《조광》 제9권 3호, 22-26쪽. 이 인용문에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 약간 축약한 부분이 있다.

24) 文部省敎學局, 1941, 《臣民ノ道》, 57-71쪽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황국신민 연성관이 실려 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천황에 봉사하고, 각각의 分에 따라 황국을 위해 기쁘게 진력하며, 한 그릇의 밥이나 한 벌의 옷이라도 천황의 것으로 여겨 감사하고, 노는 순간이나 자는 시간도 나라를 위해 바치는 진짜 일본인이 되는 것이 황국신민의 연성이라는 것이다.

町洞會・部落으로 확산되어, 매월 1일 또는 15일에 거행했다.²⁵⁾ 그 목적은 忍苦持久의 정신훈련을 통해 책무수행능력을 조장하겠다는 것이었다.²⁶⁾ 애국일 행사는 神社 앞에서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국기게양대 앞에서도 실시했다. 행사는 주로 ①神社・神祠參拜, ②皇居遙拜, ③國旗掲揚, ④國歌齊唱, ⑤講話, ⑥皇國臣民의 誓詞 齊誦, ⑦天皇陛下萬歲三唱 등의 순서로 치러졌다.²⁷⁾ 그밖에 勤勞報國의 명목 아래 集會時에 2시간 정도 집단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一心不亂의 태세를 갖추자는 의도에서였다.²⁸⁾

애국일 행사의 근본취지는 조선인에게 일본의 神道・天皇・國家에 대한 敬畏心과 忠誠心, 즉 황국신민의 道를 체득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皇國臣民의 誓詞(1937년 10월에 제정) 제송은 원래부터 조선인에게만 附課되었다.²⁹⁾ 誓詞의 내용은 南總督의 통치방침인 國體明徴・內鮮一體・忍苦鍛鍊이 뼈대를 이루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애국일 행사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와 단체의 각종 집회에서 誓詞를 齊誦하고, 또 출판물에도 이것을 게재하도록 강요했다. 심지어는 이것을 일본어로 외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배급품을 지급하기도 했다.³⁰⁾ 朝鮮教育會는 京城의 南山에 南總督의 親筆로 새긴 皇國臣民誓詞之柱와 조각을 건립하여(1939.11.24), 이것을 선전・보급했다.³¹⁾

조선총독부는 황국신민의 서사와 더불어 이것을 動的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황국신민체조를 만들어 보급했다. 조선총독부의 皇國臣民體操趣意書(1937.10.8)에 따르면, 일본 武道의 형식을 본떠 만든 이 체조는 신체의 연성과 정신의 통일을 통해 確固不拔의 정신과 忍苦持久의 체력을 양성하고 황국신민다운 氣魄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³²⁾ 조선총독부는 1937년 10월부터 전국의 각 학교와 일반에게 이 체조를 널리 보급했다.³³⁾ 조선인은 애국일 행사,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황국신민체조의 실시 등을 통해 국가총력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신과 신체를 지닌 황국신민으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조선에서는 중일전쟁 발발 1주기(1938.7.7)를 맞아 일본과 보조를 맞추어 국민정신총동원운동

25) 國民精神總動員忠清南道聯盟, 1939, <愛國日ノ一般實施二關スル件> 《國民精神總動員聯盟要覽》 102쪽

26) 國民精神總動員忠清南道聯盟, 1939, <時局認識並國民精神總動員二關スル重要通牒-學校ニ於ケル愛國日設定二關スル件>, 위의 책, 95쪽

27) 위의 책, 103쪽

28)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 1938, 《生活ノ刷新二關スル件》, 32-35쪽. 근로보국운동은 ①국가관념의 함양, ②내선일체의 심화, ③근로애호 인고단련 의생봉공 정신의 함양, ④공동일치적 행동의 훈련, ⑤체력의 증진, ⑥지방의 개발, ⑦비상시국민의식의 철저,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29) 황국신민의 서사는 아동용(초등학교와 유소년단체 등에서 사용)과 일반용(중등 이상의 학교와 청년단체 등에서 사용)이 있다. 前者는 ①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②우리는 마음을 합쳐 천황 폐하에 忠義를 다합니다, ③우리는 忍苦鍛鍊하여 훌륭한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後者는 ①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써 君國에 보답한다, ②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信愛協力함으로써 단결을 굳게 한다, ③우리 황국신민은 忍苦鍛鍊을 기쁨으로써 皇道를 宣揚한다 라는 구절로 되어 있었다(1938, <生活ノ刷新二關スル件>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案參考書》, 19-20쪽)

30) 鈴木榮太郎, 1944, 《朝鮮農村社會踏査記》, 122쪽

31) 《京城日報》 1939.11.24-25

32) 朝鮮總督府, 1940, 《施政三十年史》 793쪽. 이 체조는 목검을 가지고 행하는데, 14節 동작을 3회 연속하게 되어 있었다.

33) 《京城日報》, 1937.10.13

을 전개했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강령(1938.9.22)은 多岐에 걸쳐 있었지만, 그 근본취지는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어 내선일체를 실현하고, 生活革新과 生産擴充을 이룩하여 총동원에 副應하며, 조직과 훈련을 통해 전시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었다.³⁴⁾ 조선연맹은 조선총독부의 행정조직과 표리일체가 된 실천조직이었다. 이것의 지방조직인 町洞里部落聯盟과 각종 단체 연맹에는 最末端 基底組織으로서 愛國班이 있었다. 애국반은 10戶 정도로 구성되었는데, 戶代表가 班員이 되었다.³⁵⁾ 조선연맹은 애국반을 통하여 종래의 애국일 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綱領을 구현할 수 있는 각종 기념일과 강조주년을 설정하여 생활혁신과 정신교화에 나섰다. 그 중에서도 宮城遙拜와 勤勞貯蓄은 국민정신총동원 必行二則으로서 중시했다.³⁶⁾

조선총독부는 名實共히 內鮮一體를 具現한다는 취지에서 1939년 11월 10일 朝鮮民事令과 조선인의 氏名에 관한 制令을 발포하고, 1940년 2월 11일부터 所謂 創氏改名을 추진했다. 조선총독부는 이 조치를, ‘皇紀 2600년 紀元節에 天皇陛下의 따뜻한 배려로 조선인도 日本式 氏를 갖게 되었다.’고 선전했지만, 그 眞意는 조선인을 制度上·慣習上 일본인과 같은 황국신민으로 만듦으로써 容易하게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려는 데 있었다.³⁷⁾

國民精神總動員委員會는 公私生活를 쇄신하고 전시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했다(1939.7.4). 그리고 매월 일정한 날을 국민생활일로 정하여, 당일은 全國民이 戰場의 노고를 기리고, 강력한 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自肅自省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 만들어진 國民生活要綱에는 早起勵行, 보은감사, 大和協力, 근로봉사, 시간엄수, 절약저축, 심신단련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³⁸⁾ 일본에서는 1939년 9월부터 매월 1일에 興亞奉公日 행사를 거행하기로 했는데, 실천사항은 위의 국민생활요강과 거의 같았다.³⁹⁾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흥아봉공일 제정에 호응하여 2년여 동안 실시해온 애국일을 폐지하고 1939년 9월부터 매월 1일에 흥아봉공일 행사를 거행했다. 흥아봉공일 행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애국일 행사의 그것과 거의 유사했다. 먼저, 당일 아침에는 직장과 마을에서 애국반을 중심으로 常會를 개최했다. 전국 각처에서 열리는 상회는 보통 라디오방송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다. 國民精神總動員京城聯盟이 1940년 7월에 개최한 흥아봉공일 常會의 순서는, ①오전 7시 45분 개회(국기제양-국기 주목, 국가 합창-반주 반송), ②7시 50분 궁성요배(호령 방송-1분간, 목도-1분간), ③7시 52분 기원(이천 육백주년 紀元節에 하사받은 조서 봉독), ④7시 57분 논의사항(前月의 활동 보고, 황국신민의 서사 제송, 천황폐하 만세 봉창, 국기 降下, 해산) 등이었다.⁴⁰⁾ 경성연

34) 朝鮮總督府, 1940.3, 《朝鮮に於ける國民精神總動員》, 67-70쪽. 강령의 골자는 ①황국정신의 현양, ②내선일체의 완성, ③생활의 혁신, ④전시경제정책에의 협력, ⑤근로보국, ⑥생업보국, ⑦총후의 후원, ⑧방공방첩, ⑨실천망의 조직 및 지도 철저 등이었다.

35) 애국반의 수는 1941년에 약 42만개(호대표수 약 460만), 1942년에 약 37만개(호대표수 약 459만)로서, 조선인 세대 대부분이 여기에 가입했다.(御手洗辰雄, 1942, 《南總督の朝鮮統治》 11-12쪽)

36) 朝鮮總督府, 1940.3, 《朝鮮に於ける國民精神總動員》, 141쪽 ; 애국반 실천사항은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月別로 조금씩 바뀌었다. 예를 들면, 1941년 11월은 국민개로운동, 식량국책순응, 儀禮改善, 국어사용, 貯蓄勵行에 중점을 두었다(<愛國班實踐事項> 《조광》 제7권 11호, 1941.11, 72쪽).

37) 創氏改名에 관해서는 宮田節子·金英達·梁泰昊, 1996, 《創氏改名》 明石書店을 참조할 것.

38) 朝鮮總督府, 1940.3, 《朝鮮に於ける國民精神總動員》, 165-157쪽

39) 위의 책, 147쪽

40) <愛國日はもつと自肅し積極的にやらう> 《總動員》 1940.9. 35-36쪽. 京城府의 愛國班 활동에 대해서는 이종민, 2004.5 <도시의 일상을 통해 본 주민동원과 생활 통제-경성부의 애국반을 중심으로>

맹은 이날 주민에게 神宮神社參拜, 금주, 금연, 一榮遵守, 正午默禱 등을 실천하도록 지시했다. 홍아봉공일의 상회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국민총력운동으로 바뀐(1940.10.16) 뒤에도 개최되었다. 주요 목적은 황국신민으로서의 긍지와 銃後戰士로서의 자각을 높이고, 臣道實踐과 職域奉公을 생활화함으로써 고도국방국가의 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었다.⁴¹⁾

애국일 행사에서 분화·발전해간 愛國班常會는 매월 7일 저녁에 열렸다. 애국반상회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저녁 7시 30분 혹은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애국반원인 세대주가 반드시 출석하는 게 원칙이었다. 경성연맹의 애국반상회는 대체로 ①개회, ②궁성요배, ③목도, ④申訴(주지사항 포함), ⑤보고, ⑥講話(국민총력운동·시국대책·방공·산업경제·위생·생활쇄신 등에 관한 것), ⑦폐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때로는 흥미를 돋우기 위해 和樂, 영화, 축음기, 라디오, 종이연극, 兒童遊戲, 兒童唱歌, 書畫展, 藝技披露 등을 곁들이기도 했다.⁴²⁾ 이밖에 애국반상회와는 별도로 부인반상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었다.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2시간 정도 열리는 이 모임에서는 주로 집단으로 바느질 등의 노동을 하였다.⁴³⁾ 애국반상회는 나중에 라디오방송의 지도에 따라 전국에서 一絲不亂하게 진행되었다. 그 순서는 ①개회인사, ②국기경례, ③궁성요배, ④목도(出征將兵 武運長久 기원 및 戰歿將兵 영령에 감사), ⑤通達 및 報告, ⑥협의·간담·의논, ⑦강연(국민총력조선연맹실천요향을 중심으로), ⑧황국신민서사 낭독, ⑨폐회인사 등이었다.⁴⁴⁾ 대체적인 내용은 경성연맹의 그것과 유사했지만, 국기경례, 목도, 황국신민서사 낭독 등이 추가되어 황국신민 연성의 색채가 더욱 농후해졌다.

홍아봉공일의 상회와 애국반상회의 실시요령은 1942년 1월부터 변경되었다. 천황이 日美開戰에 즈음하여 결전의지를 다지는 詔書를 반포하자(1941.12.8), 국민총력조선연맹은 일본의 예에 따라 1942년 1월부터 매월 8일을 大詔奉戴日로 정했다. 그리고 그전까지 매월 1일 아침에 개최해온 홍아봉공일 상회를 이것으로 代置하고, 매월 7일 저녁에 열던 애국반상회는 매월 10일 저녁으로 옮겨 개최하도록 했다.⁴⁵⁾

조선총독부는 大詔奉戴日의 지도정신은 대동아전쟁의 완수를 위해 내선일체를 이룩하고, 필승신념·인고단련·明朗健實의 자세로 職域奉公에 매진하는 데 있다고 선전했다. 이날의 常會는 매월 8일 아침 반드시 町洞里部落聯盟에서 방송시각에 맞춰 개최했다. 4월-10월은 오전 6시 30분, 11월-3월은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여 대개 30분 정도 실시했다. 상회에는 반드시 一家의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도서출판 해안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일상생활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41) 國民總力朝鮮聯盟事務局總長通牒, 1940.12.28, <愛國日改善ニ關スル件> 《國民總力運動事務提要》 70-71쪽. 南總督은 국민총력조선연맹 총재로서 국민총력경기도연맹역원총회 훈사에서(1940.10), 고도국방국가의 중요 요소로서 국민정신의 통일, 국민 總訓練, 자급자족을 위한 최고도의 생산력확충을 강조했다.(朝鮮總督府, 1941, 《半島ノ國民總力運動》 82-83쪽)

42) 國民總力京城聯盟, 1940.11, <常會の關き方> 《國民總力》 68-70쪽.

43) 三吉龍子, 1940, <多角的生産的婦人部常會の活動> 《總動員》, 67쪽.

44) 肥塚正太述, 1941.5, <常會早わかり讀本> 《國民總力》 제3권 제5호, 123-124쪽

45) 南總督은 大詔奉戴日의 설정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要旨의 諭告를 발표했다(1942.1.4). “미국 및 영국에 대해 황공하게도 宣戰의 大詔를 渙發하신 소화 16년 12월 8일은 우리 황국 1억 국민이 皇謨를 받들어 大東亞에 斷乎 共營圈 건설의 經綸을 펴고, 세계 인류의 역사에 一新紀元을 가져오는 날로서 국민이 영구히 잊지 못하는 바이다. 이것으로써 올해 1월 이후 매월 8일을 大詔奉戴日로 정하여 종래 매월 1일의 애국일의 취지 및 모든 행사를 이에 발전 歸一시켜 국민 상시 실천의 원천이 되도록 결정한다.”(《集成》 5, 178쪽)

주인이 출석하고, 주인이 시고일 경우에는 주부가 대신 참가했다. 각 연맹도 똑 같이 상회를 개최했는데, 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연기할 수 있었다. 상회에 참가하는 각 애국반은 반드시 班旗를 휴대했다. 상회는 보통 라디오방송에 따라 ①국민총력의 노래 또는 애국반가, ②개회·국기게양, ③국가합창, ④궁성요배, ⑤默禱, ⑥講話, ⑦공지사향, ⑧前月の 보고, ⑨황국신민의 서사 齊誦, ⑩만세 봉창, ⑪국기하강, ⑫해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官公衙, 학교, 회사, 은행, 공장 및 이에 준하는 단체의 각종 연맹의 大詔奉戴日 常會에서는 詔書奉讀式을 거행했다. 그것의 표준방법(1942.1.20 국민총력운동지도위원회 결정)은 ①경례, ②궁성요배, ③국가합창, ④조서봉독, ⑤必勝祈念(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한 필승의 祈念), ⑥훈화(관아, 학교, 각종 연맹, 각 단체의 장, 단지 시의에 따라 이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⑦황국신민의 서사 齊誦, ⑧경례 등의 순서이었다. 참가자가 많아 옥외에서 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경례 전에 ‘천황폐하만세 봉창’을 더했다. 官公衙, 학교, 회사, 은행, 공장 등에 근무하는 자도 정동리 부락연맹의 상회에 출석해야만 했다.⁴⁶⁾

대조봉대일 상회의 진행 순서와 내용은 대체로 홍아봉공일 상회의 그것과 유사했다. 참가자의 단결과 흥미를 북돋기 위해 국민총력의 노래, 애국반가, 국가 등의 합창이나 만세봉창이 추가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詔書奉讀이 不敬하게 이루어질까 우려하여 현장에서 읽지 않고 라디오講話나 강연으로 대신했다는 점이었다.⁴⁷⁾ 그만큼 천황에 대한 敬畏와 터부가 강했기 때문이었다.

小磯總督은 前任 南總督 이상으로 황국신민의 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선인에게 일본정신을 주입하고 규율생활을 체득하게 만드는 것을 통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의욕적으로 추진한 조선인의 징병조차도 조선인이 천황에 충성하는 진짜 일본인이 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개조하는 특별연성이야말로 最大最善의 急先務라고 여겼다.⁴⁸⁾ 조선총독부는 학무국에 연성과를 설치하고 체육 등의 업무를 맡게 했다(1942.11.1).⁴⁹⁾ 그리고 小磯總督이 총재를 겸하고 있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조직을 개편하여, 사무국 총장 밑에 가장 큰 부서로서 鍊成部를 설치했다(1942.11.4). 연성부에는 思想課(황도정신의 양양, 국민사상의 통일, 방공 방첩 방법, 준법정신의 철저 및 보호시설에의 협력), 鍊成課(국민의 일반적 연성, 국어보급, 지도자 부인 단체 등의 지도 연성, 국민방공훈련), 靑年課(청소년의 지도 연성), 군사보급과(군사사상의 보급)를 두어 각각의 所任을 다하도록 했다.⁵⁰⁾ 官民이 一體가 되어 황국신민의 연성을 全一的으로 추진한 것이다.

46) 1942.2, <大詔奉戴日運營에 대해> 《朝鮮行政》 232, 94쪽. 그밖에 대조봉대일과 관련하여 평시에 일반적으로 이행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반드시 국기를 게양할 것, ②神社寺院·교회 등에서는 필승기원의 행사를 행할 것, ③각자 한층 직역봉공에 精勵할 것, ④향락방면의 업자는 일층 자숙의 철저를 기할 것, ⑤戰線將兵의 노고를 기려 한층 皆勞·절약·저축의 실을 올릴 것, ⑥금주절연을 여행할 것, ⑦영화관에서는 뉴스영화·문화영화 등에 중점을 두고 황국정신의 함양, 시국의 인식, 과학지식의 계발, 일상생활의 개선 등에 도움을 줄 것, ⑧영화관에서 흥업시간 중 약 5분간 내외 시국관계 기타 대조봉대일에 관한 장내방송 또는 강화를 할 것, ⑨군사원호에의 협력, 傷病兵 및 출정군인 유가족의 위문을 강화할 것, ⑩애국반의 단결정신을 강화할 것, ⑪한층 폐품회수의 실을 올릴 것.

47) 國民總力朝鮮聯盟, 1942.2, 《國民總力》 8쪽

48) 朝鮮總督府 情報課長 堂本敏雄, 1943.4, <鍊成と半島人> 《國民總力》 제9권 4호, 56쪽

49) 1942.11.1,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50) 國民總力朝鮮同盟編, 1944, 《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160-161쪽.

조선총독부와 국민총력조선연맹은 戰況이 급박해지자 종래의 대조봉대일을 1943년 3월 1일부터 鍊成日로 바꾸고, 매주 월요일마다 그 행사를 거행하도록 督勵했다. 鍊成日에, 관공서·공공단체·회사·은행·각종 조합사무소는 출근 정각 보다 30분 내지 1시간 반 전에, 공장·광산사업장 등은 지도자가 정한 적당한 시간에 평일보다 일찍 출근하여 엄격한 규율 아래, ①국민의례, ②체조·교련을 행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훈화·근로작업 등의 행사로 대신했다. 여자는 교련 대신에 儀禮 등을 습득했다. 연성일 행사의 대체적인 내용은 大詔奉戴日의 그것과 거의 비슷했다. 그렇지만 행사의 빈도를 월 1회에서 주 1회 즉 4배수로 늘리고, 연성의 범위를 各界各層으로 확대함으로써 황국신민화와 국가총동원의 強度를 극단으로 높였다.⁵¹⁾

조선총독부는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게 되자 생산·배급·소비의 모든 분야를 급속히 軍需體制로 재편해갔다. 그리하여 황국신민의 연성도 총동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⁵²⁾ 국민총력조선연맹은 연성부를 축소하고 實踐部를 새로 설치했다. 1943년 11월 15일의 조직개편에서, 연성부는 국민신앙과(국체의 본의 철저, 국민신앙의 지도, 국민사상의 통일)와 연성과(지도자 연성, 기타의 일반 연성)로 줄어든 반면, 실천부는 仕奉課(仕奉隊, 애국반의 지도, 기타 근로보국운동)와 戰時生活課(전시생활의 확립, 저축 장려, 후생, 군인 원호)를 거느렸다. 小磯總督에 이어 阿部信行이 總督에 취임(1944.7.24)한 이후인 1944년 12월 1일의 조직개편에서는 아예 연성부가 폐지되어 實踐部 아래 연성과(국민신앙, 연성)로 편입되었다. 반면에 사봉과는 신설된 勤勞部로 이관되어 사봉대의 지도, 노무관리 개선의 촉진, 증산운동 등을 담당하였다.⁵³⁾

일본이 점점 패전의 궁지에 몰려가자 조선총독부는 1945년 초에 결국 국민총력조선연맹을 國民義勇隊中央本部로 개편했다. 이 명칭에서 보듯이 새 조직의 목적은 조선인 모두를 전쟁에 직접 가담시키려는 데 있었다.⁵⁴⁾ 이에 따라 황국신민의 연성은 조선인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一舉手一投足を 규제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무한대로 확대된 연성은 이미 연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그리하여 황국신민화를 통한 내선일체의 실현도 미완성인체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51) 朝鮮總督府, 1943, 《朝鮮統理と皇民化の進展》. 국민총력조선연맹은 황국신민 연성을 통한 내선일체화의 실현과 전시협력을 통한 국가총동원의 실천을 운동의 두 축으로 삼고 있었다. 그 중에서 황국신민 연성의부문별 목표와 내용을 揭示하면 다음과 같다. ①지도민족으로서의 연성-황국의 세계적 사명 자각의 철저, 지도민족인 자질과 품격의 함양, 세계 신질서 건설 단계에 관한 지식의 보급, ②지도자의 연성-지역연맹지도자의 연성, 추진대원의 연성, ③청소년의 연성-청소년 학도에 내리신칙에 奮勉 철저, 무도·角力·수영·登山·馬術·국방경기 등의 장려, 군사기본기술의 훈련, 해양국방의 훈련, 耐寒耐暑鍛鍊, 吟詠의 지도, ④부인의 연성-부인의 躰 기본요강 작성, 부인지도원의 연성, 부인지도원의 내지 파견, 부인지도원의 지방순회강연, 부인연성에 관한 집회 및 인쇄물 간행, ⑤지역의 연성-각 지역에서의 연성요강의 작성, 지역에서의 연성조직 결성의 촉진, 지역지도자의 연성, 직원 및 노무자의 연성, 지역봉공정신철저를 위한 계발선전, ⑥선전문화의 연성-선전문화인 연성 강습, 선전문화인의 성지 참배, 근로봉사, 농촌 기타 생산지 파견(國民總力朝鮮聯盟, 1943, 《國民總力運動要覽》, 33-75쪽; 《集成》 6, 218쪽).

52) 1943.1, <座談會 鍊成を語る> 《朝鮮行政》 234号, 32-34쪽

53) 國民總力朝鮮同盟編, 1944, 《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163-166쪽

54) 大藏省管理局, 1946,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通卷3 朝鮮2, 76쪽

2. ‘鍊成’運動의 部門別 深化

1) 學生

학생은 체계적인 교육조직 속에 편성되어 있는데다가 제2의 국민으로서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황국신민 연성의 1차 대상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과 일본의 학제를 동일법규 아래 균등하게 만들겠다는 방침 아래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했다(1938.3.4). 그렇지만 이 법령의 실제 목적은 南總督이 표방한 3대 교육방침(國體明徴・內鮮一體・忍苦鍛鍊)을 철저히 받들어 조선인을 眞個 황국신민으로 육성하는 데 있었다.⁵⁵⁾ 곧이어 공포한(1938.3.15) 소학교규정은, ‘소학교는 아동 신체의 건전한 발달에 유의하여 국민도덕을 함양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보통의 지식을 얻게 함으로써 충량한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데 힘써야’한다고 규정했다. ‘충량한 황국신민을 육성’한다는 구절은 일본의 소학교령에는 없는 내용이었다.⁵⁶⁾ 따라서 조선인에게도 일본인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명목으로 발표한 제3차 조선교육령은 異民族인 조선인을 진짜 일본인 즉 황국신민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⁵⁷⁾ 조선총독부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 경성에 교학연구소를 설치하고(1939.4), 敎員을 이 道場에 수용하여 國體本義에 기초한 황국신민 교육의 진수를 철저히 하게 鍊成했다.⁵⁸⁾

조선총독부는 황국신민의 연성이 조선통치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학교교육도 이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국민학교제도를 도입하면서 발표한(1941.3.31) 국민학교령은, ‘국민학교는 황국의 道에 따라 초등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의 기초적 鍊成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⁹⁾라고 규정했다. 소학교의 목적이 ‘충량한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것이었는데 비해, 국민학교의 목적은 ‘황국의 道에 따라’ ‘국민의 기초적 鍊成’을 이룩하는 것으로 강화된 것이다. 여

55) 위의 책, 780쪽; 高尾甚造, 1938, <改正教育令の實施まで> 《文教の朝鮮》 152호, 140쪽; 南總督은 조선교육령의 개정을 육군특별지원병령과 더불어 內鮮一體化의 중요 시책이라고 평가했다. ‘통치의 목표는 반도의 일본화 즉 내선일체의 구현에 있다. … 위와 같은 이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개의 중요 시설을 하고자 생각한다. 그 하나는 조선인 지원병제도의 실시, 그 둘은 교학쇄신 및 확충입니다.’(朝鮮總督府, 1940, 《施政三十年史》 803쪽)

56) 近代日本教育制度史料編纂會, 1956, 《近代日本教育制度史料》 8, 大日本雄辯會講談社, 176쪽.

57) 宮田節子, 1991, <皇民化政策の構造>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綠陰書房, 46쪽

58) 全朝鮮에서 선발된 제1회 研修員(1939.4.25-5.24)의 일과는 다음과 같았다. ①5:30-6:00 기상, 作務-세면, 냉수마찰, 청소 작업 등, ②6:00-6:30 朝拜, 靜座-神拜祝詞奏上, 궁성요배, 誓詞, 靜座正念, 朗誦 등, ③6:30-6:50 修練-建國體操, 황국신민체조, 라디오체조, 국민체조 등, ④7:00-8:00 朝食-靜座朗誦, ⑤8:00-12:00 강의, ⑥13:00-15:00 강의, ⑦15:00-16:00 수련-작업, 무도, 체조, 등산 등, ⑧ 16:00-18:00 자기연구-자기연구, 합동시찰 등, ⑨18:00-19:00 夕食-정좌, 낭송, ⑩19:00-20:30 默修 또는 연수회-연수회(水, 土), 체조, 창가, 율동, 유희, ⑪ 20:30-21:00 夜拜, 정좌-朝拜에 準한다, ⑫ 21:00-21:30 作務, 就床-청소, 취침(1939, <敎學研修所參觀記> 《朝鮮の敎育研究》 130, 68쪽)

59) 1941.3.31, 《朝鮮總督府官報》

기에서 말하는 ‘황국의 도’는 ‘3천년에 걸쳐 빛나게 生成發展해온 일본민족의 역사 그 자체’이고, ‘국민의 기초적 연성’은 학생의 정신과 행동을 ‘황국의 도’에 통합·귀일시키는 것이었다.⁶⁰⁾ 南총독은 國民學校制度를 실시하는 이유가 황국신민의 자질 연성에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다.

우리나라 敎學이 목적하는 바는 우리의 존엄한 國體本義에 기초한 敎育勅語의 취지를 奉體하여 皇運扶翼의 大道에 매진할 수 있는 忠良有爲한 皇國臣民의 資質을 鍊成하는 데 있다. … 대동아공영권의 확립과 세계 신질서의 건설은 더욱 有爲한 인재를 구하고 있는 이 때, 臣道實踐의 根基를 길러야 할 敎育에서도 국가 신체제에 卽應하여, 정말로 八紘一宇의 肇國精神을 顯示해야 할 황국신민의 자질을 연성할 필요가 한층 더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것이 반도에서 국민학교제도를 실시하려는 이유이다.⁶¹⁾

조선총독부는 국민학교 敎育의 방법으로서, 지식과 실행, 정신과 신체의 一體的 단련을 중시하고, 共學共鍊, 師弟同行, 敎兒一體의 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조선총독부는 이의 실천을 위해 학교를 全一의 人格陶冶와 國民鍊成의 道場으로 재편했다.⁶²⁾ 국민학교의 교과는 국민과(수신, 국어, 국사, 지리), 理數科(산수 및 理科), 체련과(체조, 武道), 예능과(음악, 습자, 圖畫 및 공작, 여자에 대해서는 家事 및 裁縫), 직업과(농업, 공업, 상업 또는 水産)의 5科로 통합되었다.⁶³⁾ 수업시간은 45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되고, 대신에 학교행사, 공동작업, 단체훈련, 체육, 운동, 위생훈련, 국어연습, 음악연습 등의 시간이 늘어났다. 四大節(四方拜, 紀元節, 天長節, 明治節), 축제일, 靖國神社大祭, 애국일, 조례, 운동회, 원족, 수학여행, 시업식, 입학식, 졸업식, 집단근로, 전람회, 학예회 등의 행사는 교과와 一體化되었다. 교사는 학급연성에 心魂을 기울여 학생에게 尊皇敬神·祖孫一體·身土不二의 정신을 주입하고, 황국의 道에 따른 禮法과 行動의 修鍊을 통해 일본민족으로서의 혼을 각성시켰다. 특히 국가총력전에 부응하여 體鍊的·尙武的 집단훈련을 중시하고, 理工的 과학 敎育의 진흥을 꾀하며, 聽覺 및 色覺 훈련을 철저히 함으로써 兵力으로서의 자질을 연마했다.⁶⁴⁾ 각 학교의 교우회는 국민총력학교연맹으로 개조됨으로써(1941), 학생은 舉校一體·師弟同行의 신체제 아래 국민총력연맹원의 자격으로 高度國防國家體制의 一翼을 담당하게 되었다.⁶⁵⁾ 그리하여 학교敎育에서는 鍊成, 修鍊, 訓練, 鍛鍊, 鍊磨 등과 같이 ‘精鍊한다-鐵 등에 火氣를 넣어 硬度를 높인다’는 뜻을 지닌 단어가 敎育방법의 성격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유행했다.⁶⁶⁾

60) 小林節藏, 1942.5, 《國民學校學級鍊成の新形態》 啓文社出版, 東京, 1쪽, 28쪽. 鍊成의 敎育적 성격을 강조하는 자들은, 서양의 敎育은 주로 自己保存性을 基調로 한 知的·合理的 敎育을 강조하고, 일본의 敎育은 種族保存性을 중시해온 祖孫一體의 本能的·直觀的·感情的 純化를 지향한다고 보았다.(위의 책, 5-7쪽)

61) 《集成》 5, 225-226쪽 ; 伊倉健治, 1942, 《改訂 國民學校敎育精說》 春川師範學校, 1-4쪽

62) 위와 같음.

63) 松月秀雄, 1942, <國民學校令と体育> 《文教の朝鮮》 200호, 2쪽

64) 小林節藏, 1942.5, 《國民學校學級鍊成の新形態》 啓文社出版, 東京, 1-3쪽

65) 《集成》 5, 139-140쪽

66) 위의 책, 3-4쪽. 당시 학생의 연성은 다음과 같이 日本刀의 단련에 곧잘 비유되었다. “소위 철과 같은 意思, 百鍊의 철과 같은 성격을 쌓아간다. 그런 의미를 일본에 적용하면 이른바 ‘日本刀가 敎育한다’라고 말 할 수 있다. 일본도가 강철의 투구를 내려쳐 쪼개어도 칼날은 흠집도 안 나는 강력함, 적극적 강력성, 그것과 鍊鐵의 부러지지 않는 강인함, 끈기의 강력함, 이것이 일체가 된 것이 일본

小磯총독은 교육심의위원회(1942.12.5)에서 조선에서도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⁶⁷⁾ 조선인을 징병으로 끌여가기 위해서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연성이 꼭 필요한데, 그것은 국민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4차 조선교육령의 실행은 (1943.4.1) ‘대동아전쟁 완수’와 ‘대동아건설 彌成’을 위해 황국신민의 연성체제를 完整하고, 교육내용의 쇄신과 수업연한의 단축을 통해 국방교육체제를 완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의 학교제도는 일본의 여러 學校令과 부합함으로써 일본과 조선은 동일한 체제 아래 황국신민의 연성에 邁進할 수 있게 되었다.⁶⁸⁾

戰局이 악화되자 조선총독부는 ‘學徒戰時動員體制確立要綱’을 발표했다(1943.7). 주요 내용은 有事即應體制確立, 學校敎鍊의 徹底強化, 근로동원의 강화, 식량증산, 국방시설, 긴급물자 생산, 수송력 증강 등이었다. 이에 따라 학교부속농원과 실습지 등이 開墾되고, 학생도 국방요원 내지 생산요원으로서 동원되었다.⁶⁹⁾ 小磯총독은 중등학교장회의(1943.7.12)에서, 學徒의 決戰即應體制는 대동아전쟁 필승의 결전단계에 적응하고, 軍敎一體의 정신을 강화하여 학도에 戰技를 가르쳐, 국토방위, 산업부문 및 교통부문 등 전시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학생은 오로지 戰技訓練의 철저를 도모하고 심신을 단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고, 滑空, 機甲, 해양, 馬事, 통신 등의 훈련을 장려했다.⁷⁰⁾

학교교육에서 연성의 無制限的 확대는 곧 군사훈련이었다. 그리고 그 귀착점은 학생의 군사동원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총독부는 ‘半島學徒臨時特別志願兵’으로서 軍門에 들어가는 생도에게 예비훈련을 시키기 위해 特別志願學徒鍊成所를 만들었다(1943.12.22). 小磯총독은 그 훈시에서,

皇國은 현재 大和魂이라는 정신력과 用兵의 妙와 독특한 실력과 비약하는 생산증강의 물력 모두 적에게 우월하다. … 皇軍이 강한 이유는 그것이 形而下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고, 진심이다. 하나의 誠이야말로 모든 것을 지배한다. 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1주간의 연성으로 軍門에의 태세를 굳히기 바란다.⁷¹⁾

고 말했다. 연성은 이제 形而上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정신주의로 치달았다. 조선총독부는 곧 ‘決戰非常措置要綱’을 발표하여(1944.2), 중학생 이상에 대해 1년 常時 動員體制를 갖추었다.⁷²⁾

도입된다. 강철은 강하지만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충하여, 어디까지나 강인하게 끈기 있고, 長期戰的인, 버텨서 사업을 완수한다는 성격, 그것과 강철의 자르는 맛, 자르는 힘, 이 양자를 겸비한 인간, 일본도와 같은 인간을 단련해가는 것이 오늘의 교육자에게 요청되는 점이다.”(1943.1, <座談會 鍊成を語る> 《朝鮮行政》 234호, 26-28쪽)

67) 《集成》 6, 99쪽

68) 大野健一, 1943, <朝鮮教育令の改正とその實施について> 《文教の朝鮮》 210호, 4쪽

69) 近藤英男, 1944, <朝鮮における學園非常態勢について> (下) 《朝鮮》 347호, 40쪽. 당시 잡지 등에서는 제2의 국민인 학생이 근로작업에 참가하는 것의 교육적 효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총력전하거국의 결전체제에 참가하여 그 心魂을 연마하고, 신체를 단련하고, 현실의 체험을 통해 불굴의 의지를 배양함으로써 교육정신의 강화발달을 기한다. 조선의 국가적 대사명인 식량증산운동에 따라나서 얼굴에 땀을 흘리는 감격은 교단에서 하는 천 마디 말의 修身訓話보다 萬萬倍나 효과적이다.” (<皇國農道の昂揚と食糧増産> 《朝鮮行政》 246호 1943.4, 230-238쪽)

70) 《集成》 6, 298-299쪽

71) 《集成》 6, 440쪽

그리고 ‘決戰非常措置要綱’에 기초한 學徒動員實施要綱(1944.3.7)을 실시하여, 일요일에도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노무에 동원했다.⁷³⁾ 전시교육령의 실시(1945.7.1)는 연성이 파탄에 직면하였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였다.

2) 靑年

청년은 정신과 신체 양면에서 勞務와 兵事에 적합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평시에도 그들의 훈련에 힘을 쏟았다. 일본의 예에 따라 청년훈련소규정을 공포하고(1929.10.1), 16세의 남자를 입소시켜 4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 좋은 예이었다. 그 목적은 청년의 심신을 단련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었다. 청년훈련소는 나중에 실업보수학교를 아우르는 학교체제로 발전하여, 위의 목적 이외에도 남녀청년에게 직업 및 실제생활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을 보급하는 역할을 했다. 국가총동원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청년훈련소의 규모는 확장되어, 1941년 10월 현재 공립훈련소 1743개 소, 사립훈련소 87개 소, 직원 수 1173명, 생도 수 7만 4207명을 헤아렸다. 그리고 그 역할과 성격도 조선청년을 황국신민으로 연성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⁷⁴⁾

조선총독부는 國民精神總動員運動을 助長할 수 있는施設로서 중견청년수련소를 설치했다(1939.4). 설립의 취지는 사회의 지도자가 될 청년남녀에게 견실한 국가관념과 견고한 국민신념을 심어주고, 황국신민으로서의 긍지와 중견인물로서의 자질을 연성시키는 데 있었다. 중견청년수련소는 ‘內鮮一體의 靈地’라고 불린 충남 夫餘에 자리 잡았다.⁷⁵⁾ 청년훈련소가 확대되고, 중견청년수련소가 설치된 것은 육군특별지원병령(1938.2.26)과 조선총독부육군병지도자훈련소규정(1938.4.2)의 공포와 제도를 같이하는 조치였다.

조선청년의 연성이 국가총력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은 조선청년특별연성소의 설치와 운영이었다. 그 목적은 조선청년 중에서 국민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軍務에 필요한 자질을 연성하고, 아울러 근로에 적응하는 소질을 육성하는 데 있었다.⁷⁶⁾ 小磯총독은 朝鮮靑年特別鍊成令의 시행(1942.11.3)을 앞두고 열린 임시도지사회의(1942.10.27)에서 이 법령의 취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황국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一死殉忠의 일본정신과 강건한 신체를 구비할 것을 요하고, 이 자질은 입영 후 군의 엄격한 훈련에 의해 더욱 단련되는 것입니다만, 조선의 현상을 개관하건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교양이 충분하지 않은 자가 많고 특히 정신적 방면에서 그렇다는 것을 통감하고, 그 결함을 보충할 근본 대책으로서 국민교육의 의무제를 가급적 빨리 실시할 필요를 인정해 지금 銳意

72) 近藤英男, 1944, <朝鮮に於ける學園非常態勢について(下)> 《朝鮮》 347號, 43-44쪽.

73) 위의 책, 44쪽

74) 西尾達雄, 2003.2, 《日本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學校体育政策》 明石書店, 531-534쪽. 1938년 1월 당시 조선의 청년단 수는 약 4천여 개, 단원 수는 약 15만 명, 조선총독부의 중견청년양성강습회(1931년 이래)를 수료한 사람은 450여 명이었다(《集成》 5, 135쪽). 조선의 청년단과 청년훈련소 등에 대해서는 최원영, 1997, <일제말기(1937-45)의 청년동원정책-청년단과 청년훈련소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허수, 2000, <戰時體制期 청년단의 조직과 활동>《國史館論叢》 第88輯 등의 연구가 있다. 전자는 연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75) 近藤英男, 앞의 글, 44-45쪽.

76) 1942.10.1,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준비 중입니다만, 응급조치로서 조선청년 가운데 국민교육 미취학 분야에 대해 일정한 연성을 실시함으로써 이 청년들이 장래 健民 健兵이 될 수 있는 자질을 啓培하기 위해 본 연성제도를 정한 바입니다. 또 한편 총력전 체제에 즉하는 노무동원의 요청에 응해 만도청년이 근로로 국가에 봉사하고 聖業을 翼贊하여 만드는 것은 병역에 버금가는 중요한 책무임에 비추어, 이의 연성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자질을 체득시키려는 취지도 아울러 겸한 까닭입니다. 요컨대 본 제도는 징병제와 形影相伴하는 중요시책인 동시에 국력증강에 가장 중요한 근로사상을 啓培하는 것으로서, 본 施設에 의해 만도청년의 일반적 자질은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산업 및 문화의 신장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믿습니다.⁷⁷⁾

위에서 보듯이, 조선총독부는 조선청년을 동원하여 군사력과 노동력에 충당하고자 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청년을 충당한 황국신민으로 연성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⁷⁸⁾ 연성소의 입소 대상자는 국민학교를 수료하지 못한 조선인 남자(1942년 4월 1일에 17세 이상, 1943년 3월 31일에 21세에 이르지 않는 자) 중에서 道知事が 선정했다. 연성기간은 대개 1년이지만, 조선총독이 필요에 따라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었다. 입소는 매년 4월이었다. 연성시간은 훈육 및 학과 400시간, 교련 및 근로작업 200시간이었다. 연성의 내용은 일본어 습득, 체위 향상, 일본식 생활 수련 등이었다.⁷⁹⁾ 그 중에서도 일본어의 습득을 가장 중시하여, 600시간 가운데 400시간은 할당하는 경우도 있었다.⁸⁰⁾ 兵事와 勞務에서는 일본어의 해득이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이다.

朝鮮靑年特別鍊成所는 1942년 12월 1일 현재 공립 715개, 사립 26개였다. 1943년에는 1,922개소의 공립연성소가 증설되었다.⁸¹⁾ 연성소는 대부분 기존의 국민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교원과 현역 군인이 교육을 담당했다.⁸²⁾ 입소 대상자는 1944년도의 징병 적령자 가운데 미취학자 11만 명이었고, 1942년 12월부터 1943년 초까지 3만 명, 1943년 4월부터 1944년 3월말까지 8만 명을 교육시키고, 1944년 이후부터 매년 약 1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었다.⁸³⁾

조선총독부는 청년특별연성소의 연성을 마친 사람 가운데 징병예비검사에서 현역 징집이 예상되거나 징병검사에서 현역 징집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1944년 5월부터 차례대로 軍務豫備訓練所에서 약 2개월간의 훈련을 다시 받도록 하였다.⁸⁴⁾ 군무예비훈련소는 육군병지원자훈련소를 징병제 실시와 함께 개조한 것으로서, 경성·평양·시흥의 3개소 설치되었다. 이 훈련소는 징병

77) 《集成》 5, 264-265쪽. 小磯총독은 각도 내부부장회의(1942.11.14)에서 朝鮮靑年特別鍊成令의 시행 방향에 대해, “황국 일본의 훈육은 국체관념에 투철하게 하는 것이다. 특별연성령이라는 것은 징병의 예비훈련입과 동시에 근로정신의 훈련이다. 현재 일본을 통틀어 노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노무자에게 정신적 감격을 주는 것이다. 전쟁에 승리하는 데는 무력과 물자가 필요하다. 즉 생산확충이다. 생산확충에는 노무자 한사람 한사람이 진실로 그 입장을 자각하는 것이다. 요는 노무정신의 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集成》 6, 82쪽)

78) 정무총감 田中武雄의 조선청년특별연성령 제정에 대한 담화(1942.10.1)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본령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조선인 남자 청년에 대해 심신의 단련, 기타 필요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이들 청년이 장래 군무에 종사할 경우 필요한 자질을 연성하고 아울러 근로에 적응하는 소질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集成》 5, 472쪽)

79) 1942.10.28, 《朝鮮總督府官報》 4724호 ; 朝鮮總督府, 1943, <朝鮮統理と皇民化の進展>

80) 崔由利, 앞의 책, 166쪽

81) 朝鮮總督府, 1943, <朝鮮統理と皇民化の進展>

82) 大藏省 管理局, 앞의 책, 60쪽

83) 朝鮮總督府, 1943, <朝鮮統理と皇民化の進展>

84) 위의 글 ; 1944년도의 예상 인원은 25,000명이었다.

제 실시를 앞두고 의무교육제가 없는 조선에서 조선청년에게 일본어와 교련을 가르치고, 忠孝一本의 정신과 황국군인의 死生觀을 터득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훈련 일과는 05:30 기상에서 21:30 소등까지 계속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훈육-勅語勅諭의 뜻을 받들어 국체의 존엄과 황군의 본질을 가르친다. ②학과-일본어에 중점을 두고 상식을 늘린다. ③術科-교련·체조·무도에 의한 至誠盡忠의 군인정신 함양과 身心一體의 실천단련을 꾀한다. ④內務-규율·절제·복종·체험·협동의 습관과 덕성을 함양한다. 훈련기간은 40일이었다. 朝禮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사가 거행되었다. ①경례, ②궁성요배, ③伊勢皇大宮拜禮, ④칙유·吾等の 훈련·所訓 齊誦, ⑤海ゆかば 齊誦, ⑥訓示及注意, ⑦체조⁸⁵⁾

병력동원의 압박이 가중되자 조선총독부는 국민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청년에 대해서도 훈련을 실시했다. 초등교육을 받은 후 5,6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軍務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입영 전에 단기간이라도 연성하여 皇軍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조선총독부는 청년훈련소 2,207개소를 설치했다. 그리고 여기에 입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1944년부터 징병예비검사를 실시하여, 현역 징집이 예상되는 약 22,000명을 청년훈련소 別科에서 1년 300시간을 표준으로 징병예비훈련을 실시하였다.⁸⁶⁾

이상에서 보았듯이, 각종 훈련소를 이용한 조선청년의 연성은 징병·징용제도의 실시를 전방하면서 실시되었다. 연성의 핵심은 천황을 위해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칠 수 있는 死生觀을 심어주어, 기꺼이 징병·징용에 應召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는 데 있었던 것이다.⁸⁷⁾

3) 勞働者

조선총독부는 국가총력전의 물적 자원을 직접 생산·운반·조종하는 조선인 노동자를 황국정신에 투철한 근로자로 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⁸⁸⁾ 조선총독부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 더불어 1939년 9월부터 興亞奉公日 행사의 일환으로 근로보국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의 목적은 조선인에게 국가관념, 내선일체, 근로애호, 인고단련, 희생봉공, 공동일치행동, 체력증진, 지방개발, 비상시국의 인식 등을 심어주는 데 있었다.⁸⁹⁾ 이에 따라 만14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

85) 本誌記者, 1944.8, <意氣衝天한 第三軍務豫備訓練所見學記> 《조광》 제10권 8호, 52-55쪽

86) 崔由利, 앞의 책, 205쪽

87) 1943.1, <座談會 鍊成を語る> 《朝鮮行政》 234号, 29-30쪽. 이 좌담회에서 조선총독부 관리인, “징병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연성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징병제도 실시 후의 귀중한 체험이 조선청년의 혼을 연성해간다고 생각한다. 조선청년이 生死의 문제에 대해 지금처럼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선 적은 없었다. 천황폐하를 위해 전쟁에 나가 쏘어져 죽는다는 심경은 소수 지원병의 경우 이외의 청년이 전에 생각해본 적도 없다. 이번에 그 기회를 맞았으므로 몇 년 지나면 자신이 전쟁에 나갈 수가 있다. 따라서 마음속에 死生觀을 구축해두지 않으면 안심하고 응소할 수 없는 심경이다. 어떻게든 마음의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불안하여 어쩔 수 없다. 거기에서 비로소 황국의 원리를 사생관의 기초로서 정말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88) 郭健弘, 앞의 책 ; 이상의, 2003.12, <일제지배 말기의 ‘노무관리’와 노동통제>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 선재원, 2004.5, <전시노동력동원과 노동자생활>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도서출판 해안 등은 전시체제기의 노동자 연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언급했다. 郭은 ‘노동현장의 군사화’,李는 ‘노무관리의 전시화’,宣은 ‘노사관계의 다원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

89)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 1938, 《生活ノ刷新ニ關スル件》 33쪽

와 만14세 이상 25세 미만의 여자는 자기가 속한 애국반·학교·직장·부락 등의 근로보국대에 편입되어 일정시간 노동에 종사해야만 했다.

근로보국운동은 1941년 9월부터 國民皆勞運動으로 확대되었다. 국민개로운동은 병역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조선인이 국가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노력동원에 참가함으로써 勞動賤視 경향과 半勞半閑 현상을 타파하고, 근로보국 정신과 황국신민 자질을 연성하여 고도국방국가체제의 확립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내걸었다.⁹⁰⁾ 당시 勞動界는 鍊成이 정신을 통해 신체를 지배하고 신체를 통해 정신을 확립하며, 나아가 一億一心을 구현하여 전력을 증강시키는 훈련, 즉 정신과 신체의 융합과정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조선인 노동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체득하게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다.⁹¹⁾

전쟁의 확대로 조선인 노동자의 동원이 幾何級數의으로 늘어나고, 그 방법이 募集(1939.9), 斡旋(1942.2), 徵用(1944.8) 등과 같이 조선총독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옮겨가자,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연성은 훨씬 더 조직적이고 엄격하게 되었다. 政務總監은 各道知事에게 ‘勤勞管理의 刷新強化에 관한 件’을 하달하여(1943.8.1), 노동자 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單位産業의 勞資를 군대처럼 隊組織으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각 산업의 職場은 천황을 중심으로 받드는 國民의 一大家族의 구성이자 황도국가 관념을 실현하는 産業軍團이기 때문에, 勞資의 對立的 恣意는 허락할 수 없고, 重役·職員·技能者·一般勞務者는 마치 皇軍에서 將軍·佐尉官·下士官·兵士의 관계에 있다. 皇軍이 軍團組織에 의해 最高指揮官 아래 上下 渾然一體로 군대정신의 發揚에 매진하는 것과 같이, 重役은 軍團長, 工場·事業場·事務所의 長은 部隊長, 과장 또는 계장은 중대장, 과 또는 계 직원은 소대장, 職長級은 분대장, 일반노동자는 兵士와 같은 관계에서 일치단결하여 상하간의 인격적 결합을 基調로 하는 産業軍團精神의 昂揚을 꾀하고, 지휘자는 솔선 진두에 서고, 부하는 지휘자의 지휘 아래 질서에 따르고 복종을 중시하고, 각자의 직분에서 그 능률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장·사업장은 隊組織을 만들어 철저히 근로자를 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⁹²⁾

위와 같은 指針과 아울러 정부총감이 시달한 공장·사업장 근로자 연성의 취지와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⁹³⁾ 먼저, 근로자 연성의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국체의 본의에 기초한 皇國勤勞觀에 투철하게 하고, 이것을 업무 및 일상생활에 실현함으로써 근로능률의 증진과 생산력의 증강을 꾀하는 데 있다. 연성의 방법에는 일반연성과 특별연성이 있다.

일반연성의 경우, 행사를 통한 연성으로서, 始禮(매 작업개시 전원이 함께 또는 각 부서별로 행함)에는 ①궁성요배, ②묵도, ③황국신민의 서사 제송, ④工場·事業場訓 낭독 등을 행한다. 終禮(작업종료 후 전원 또는 각 부서별로 행함)에는 ①궁성요배, ②귀가인사를 행한다. 4大節 및 大詔奉戴日 행사에서는 ①국기게양, ②궁성요배, ③국가봉창, ④칙어조서봉독, ⑤묵도(필승기원), ⑥훈화, ⑦천황폐하만세봉창, ⑧국기하강 등을 행한다. 또 각종 시설에 의한 연성으로서, 매월 1회 명사초청강연 청강, 사업장내 도서관의 도서·신문·잡지 열람, 게시장의 시국관련자료 열람, 라디오·음반 청취, 매월 1회 영화 관람, 武道를 통한 정신훈련 등을 행한다. 일상생활을 통한

90) <國民皆勞運動實施要綱> 《조광》 제7권 11호, 1941.11 ; 《朝鮮》 1941년 9월호, 61쪽 ; 宮孝一, 1941년 11월호, <朝鮮皆勞運動> 《朝鮮》, 16쪽

91) 宮孝一, <朝鮮의鍊成> 《朝鮮》 1942년 12월호, 19-26쪽

92) 1943.9, <工場事業場ニ於ケル勤勞管理要綱> 《朝鮮勞務》 第3卷第4號, 朝鮮勞務協會, 66쪽

93) 1943.9, <工場事業場勤勞者鍊成要綱準則> 《朝鮮勞務》 第3卷第4號, 朝鮮勞務協會, 67-68쪽

연성으로서, ①神棚禮拜, ② 朝寢・早起, ③무결근・무지각, ④通勤班 結成 훈련, ⑤소비생활 규제, ⑥저축 장려, ⑦敬禮 確守, ⑧정리정돈, ⑨건전오락 등을 행한다. 직장을 통한 연성으로서는 ①매월 1회 직장별 간담회에서 반성과 협의, ②규율 확립, ③정리 정돈 미화, ④工程의 공리 개선, ⑤기계공구・전력・열・자재 애호 절약, ⑥기술 향상, ⑦안전 철저 등을 이행한다.

특별연성의 경우, 新規就勞者는 반드시 합동숙사에 수용하여 취로예비연성을 해야 하는데, 주요 내용은 ①강습회(10일간)-근로보국정신, 사업의 사명, 작업기본조작 및 작업상 필요용어, 직장위생, 재해방지, 직장예의, 관계법령 敎授, ②실습강습회 종료 후 1개월간 표준작업방법 실습, ③합동숙사 생활훈 실천-단체, 규율, 위생, 경제, 일반 생활의 향상 등이었다. 중견노무자지도훈련소는 前途 유망한 청년근로자를 일정기간 입소시켜 훈련했다. 특히 사립연성소는 군사교련을 통해 규율・책임 관념을 연성했다.

국민총력조선연맹은 결전근로체제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 1943년 가을, 각종규약준칙을 일부 개정하여 광산・공장의 愛國班을 仕俸隊로 개편했다. 사봉대의 취지는 국체의 본의에 기초한 황국근로관을 견지하고 職域을 통틀어 大君에게 봉사하는 一體의 경지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능률을 증강한다는 것이었다. 사봉대 조직 중에서, 남자대원은 25세 이하를 청년대, 26세 이상을 장년대로 칭하고, 각 대는 인원의 다소와 작업기구에 따라 大隊・中隊・小隊・分隊로 나누고, 1분대는 10명, 소대는 2내지 3분대, 중대는 2내지 3소대, 대대는 2내지 3중대로 편성했다. 각 대에 대장 1명, 부대장 2명, 대・중・소・분대장 약간을 두었다.⁹⁴⁾

정무총감은 공장・사업장 근로자연성과 더불어 광산・공장 사봉대연성의 실시요령에 대해서도 지침을 내렸다. 그 중, 행사를 통한 연성, 각종 시설에 의한 연성 등은 위에서 살펴본 공장장・사업장 연성과 거의 동일했다. 그밖에 체육 및 국방에 관한 연성으로서, ① 군대적 규율훈련과 무도 및 체육 수시 실시(공장체조 등), ②국방 방첩, ③합동숙사의 생활훈련 등을 실시했다. 중견노무자에게는 수시로 강습회를 개최했다.⁹⁵⁾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위와 같이 철저하게 조선인 노동자를 연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인 노동자를 동원하고 관리하는 데 앞장섰던 朝鮮勞務協會의 囑託 上田龍南에 따르면, 조선의 野原에서 米를 취하고, 산에서 중요광물을 파내며, 靑壯年에서 최고도의 노동력을 얻는 것이 이번 전쟁을 이기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책이지만, 아직도 조선인 노무자의 質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量에는 限이 있고 끝이 있으나 質에는 한이 없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수많은 神秘性이 있다. 조선인 노무자는 모집이 잘 되지 않고, 모집해 오더라도 곧 도망간다. 남아 있는 자들도 일의 능률이 무척 나쁘다. 별로 묘안이 없다. 조선인은 일본인이고, 일본의 병기를 만들고, 일본의 이상을 살리기 위해 싸우고 있다. 따라서 조선인 노무자가 노무기술자로서 대성하기 전에, 노동능률이 증진되기 전에, 먼저 일본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인이 훌륭한 노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大和魂을 체득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 노무자는 처음부터 우수한 기능을 가진 노무자로 훈련시키기보다는 대일본제국의 臣民이자 天皇의 방패인 産業戰士로 연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조선인 노동자에게 이렇게 역설했다.

94) 《集成》 5, 350쪽 ; 國民總力朝鮮聯盟, 1943.9, <鑛山, (工場)聯盟仕奉隊組織에 關한 準則> 《國民總力運動要覽》 66-75쪽

95) 1943.9, <鑛山, (工場)聯盟仕奉隊鍊成二關スル準則> 《朝鮮勞務》 第3卷第4號, 朝鮮勞務協會, 69-71쪽

너희는 산업전사다, 총후에서 물건을 만드는 兵隊이다, 제일선의 병대는 적을 죽이는 병대, 너희는 적을 죽이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병대이다. 병대에는 병대의 도가 있다. ... 병대는 천황폐하의 방패이다, 방패는 자신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천황폐하에 일체를 바치기 때문에 마음 속에는 항상 나라의 일, 大君의 일만이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일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神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일본의 병대는 神兵인 것이다. 너희도 병대인 이상 자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일할 때까지 일하여 생산전사의 본분을 발휘함으로써 宸襟(=천황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결심이지 않으면 안 된다. ... 천황폐하를 위해 자신의 일체를 바치는 생활을 알고 또 실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너희의 職人으로서의 道는 비로서 열리는 것이다.⁹⁶⁾

조선총독부는 조선노무협회와 일체가 되어 조선인 노동자의 연성을 한층 더 督勵했다. 우선,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遊休・不急의 노동력을 轉用하기 위해 징용령을 발동하고, 근로보국대를 강화하며, 징병에서 제외된 청년과 여자의 노무동원을 강화했다. 노동자 연성의 대책으로는, 공장・사업장의 사봉대 운영과 연성요강의 철저 실천, 사업주・경영간부・노무감독자의 산업지휘자로서의 연성을 강조하고, 공장・사업장의 중견노무자 양성은 朝鮮勞務協會道支部의 道中堅勞務者指導訓練所를 활용하고, 공장・사업장의 기능자양성시설을 확충・강화하도록 지시했다.⁹⁷⁾

위와 같은 연성의 狂風 속에서 조선인 노동자는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 日本精工株式會社를 예로 들어보자.⁹⁸⁾ 이 회사의 取締役支配人 品川一郎은 공장을 인격의 修業道場이라고 정의하고 노동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과를 강요했다.⁹⁹⁾ ①07:00 朝禮-各班마다 인원 점호 보고, 궁성요배, 황국민의 신념 제창(황국민의 신념은 ‘대일본은 신의 나라이다. 천황폐하는 現人神이다. 나는 일본신민이다. 우리는 天業翼贊을 위해 태어났다. 우리는 천업익찬을 위해 일한다. 우리는 천업익찬을 위해 죽는다), 明治天皇御製一首(千万の民と共に 楽しむに ます樂は あらじとぞ思ふ), 10분간 정도의 훈화, 開散(공장에 출입할 때는 神祠에 예배한다. 각자 일본인의 마음가짐을 상징하는 히노마루 머리띠를 매고 있다. 가운데에 히노마루가 그려진 머리띠에는 天業翼贊이라고 쓰여 있다. 개산할 때는 반장 인솔 아래 뛰어서 입장한다). ②입장-工員은 기계, 직원은 책상의 標

96) 上田龍南, 1943.12 <朝鮮勞務者鍊成の方向> 《朝鮮勞務》 第3卷 第6號, 朝鮮勞務協會, 33-41쪽. 조선총독부와 그 주변 사람들이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전쟁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같은 운명에 놓여 있다는 점을 부단히 강조해야만 했다. 上田은 조선인에게, “너는 일본인이다. 너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 세계에서 둘도 없는 고마운 나라의 국민이다. 너는 조선에서 태어난 것에 틀림없다. 조선은 풍속, 습관, 언어, 혼이 일본과 많이 다르지만, 일본과 조선이 남남은 아니다, 이 大戰은 네 자신의 전쟁이다. 너는 지금 강적을 앞에 두고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는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이 직접 싸우고 조선인이 간접으로 협력하는 것은 아니다. 일억일십, 죽으면 모두 함께 죽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너의 적이다. 숙적이다. 죽여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밍고 미운 적이다. 격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싸움이 불리해지면 너의 생명은 없다, 너는 영구히 구원받을 수 없는 미영인의 노예다. 너뿐만이 아니다. 너의 자손대대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패해서 될 것인가, 패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나쁜 것이다.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을 주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97) 政務總監談, 1943.9, <生産増強勞務強化對策> 《朝鮮勞務》 第3卷 第4號, 朝鮮勞務協會, 2-4쪽

98) 日本精工京城工場은 1938년에 설립되고, 238명의 중업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폐전시의 자본금은 150만 엔이었다(木村光彦・安部桂司, 2003, 《北朝鮮の軍事工業化》 知泉書館, 134쪽).

99) 品川一郎, 1943.9, <我社の報恩奉行> 《朝鮮勞務》 第3卷 第4號, 朝鮮勞務協會, 2-4쪽

識를 향해 禮拜한다, 養成工은 安全訟을 낭송한다(표지에는 히노마루를 가운데 두고 ‘御國의 寶’ ‘나의 형제’라는 말이 쓰여 있다. 전원 일제히 작업 개시). ③11:50 전원 체조, 正午默禱. ④12:00 전원 식당에 집합, 식사-식전식후의 감사의 말 제창(종업원이 교대로 주창한다). ⑤16:20 종례-점호 事故 보고,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해산(해산의 경우에도 반장이 인솔 아래 뛰어 해산한다). ⑥해산 후 기계 및 현장 청소.

조선총독부는 일본으로 동원되는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연성을 실시했다. 조선인 노동자의 동원은 ‘勞務動員實施計劃에 의한 朝鮮人勞務者の 内地移入斡旋要綱’(1942.1)에 따라 조선총독부와 지방청이 직접 斡旋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 요강에 따라, 道·府郡島·職業紹介所·朝鮮勞務協會는 조선인 노동자를 隊組織(1組는 5-10명, 2-4조로 1班, 5반 내외로 1隊를 구성)으로 편성하여, 알선의 취지, 국가적 사명, 직책의 중대함을 자각시키고 근로보국의 자부심을 주입시켰다. 조선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일본의 관련기관은 6개월간 별도의 훈련을 실시했다.¹⁰⁰⁾

朝鮮勞務協會는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全羅南道 光州에 勞務指導員訓練所를 개설하고 (1942.2.14), 일본과 조선서북지방으로 동원되는 중견 노동자에 대해 휴일도 없이(월일화수목금) 노무지도원으로서의 心神과 資質 향상 연성을 실시했다. 이 연성의 목적은 조선인 노동자에게 일본의 언어·습관·풍속을 익히고, 규율과 통제에 따르는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勞務管理上·内鮮一體化上 야기되는 문제를 미리 해소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敎授訓練科目도 대체로 단 체관념 및 敬神思想의 함양, 시국인식 및 방첩사상의 함양, 簡易簿記, 구급법 및 보건위생, 禮儀作法, 교련, 실습 등으로 짜여졌다. 입소자격은 국민학교(6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사상건실·素行善良·신체강건한 조선남자, 장래 道斡旋勞務者の 반장 또는 단장으로서 일반 노무자를 통솔할 수 있는 才幹을 갖고 鄉黨靑年間에 신망이 두터우며 스스로 노동에 건달 만 한 자 등이었다. 훈련기간은 대개 2주간이었다. 훈련생의 일과는 다음과 같았다. ①06:00 기상-침구정돈, 세면, 청소, ②07:00 조회-점호, 예배, 궁성요배, 묵도, 誓詞齊唱, 운동, ③07:40 朝食-식사전후의 감사, 식기세척, ④09:00-12:00 學實科, ⑤12:00-13:00 晝食-묵도, 체조, 식사전후의 감사, 식기세척, ⑥13:00-17:00 학실과, ⑦17:00 청소-舍内外의 청소, ⑧18:00 夕食-朝食과 동일, ⑨19:00-21:00 자습-特別敎授, 常會, 좌담회, 指示注意, 자습, ⑩21:00 점호-점호, 拜神, 궁성

100) 厚生局勞務課, 1942.4, <勞務動員實施計劃に依る朝鮮人勞務者の内地移入に就て> 《朝鮮勞務》 第2卷 第2號, 朝鮮勞務協會, 16-20쪽. 일본으로 연행된 조선인 노동자는 관련기관의 훈련도장에 수용되어, 취로예비훈련(취로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예비적 지식을 가르쳐 산업노동자의 기초적 훈련을 실시한다), 생활훈련(단체생활 규율생활을 순치함과 더불어 위생생활 경제생활 일상의례 기타 일반생활의 개선 향상을 기할 것), 작업훈련(현지 직장에서 지식 및 기술의 지도를 피하고 작업능률의 증진을 기할 것), 황민훈련(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도야연성하고 충군애국의 정신을 함양할 것), 체련(체위의 향상을 피하고, 四肢動作을 기민하게 하며, 剛健果斷, 堅引持久, 規律共同의 정신을 함양할 것) 등을 연성했다. 황민훈련이 특히 중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①황민행사에 관한 사항, ②수신공민에 관한 사항, ③국어(말하기, 읽기, 쓰기, 짓기)에 관한 사항, ④사교의례에 관한 사항, ⑤시국인식 및 전지생활에 관한 사항, ⑥경신사상 및 종교심의 啓蒙에 관한 사항, ⑦情操陶冶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훈련기간은 6개월로서, 2개월씩 3기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강화해갔다. 일반 훈련은 도장훈련을 종료한 자에게 취로기간 중에 실시되었는데, 도장훈련의 예를 유지하고, 매주 1회(2시간) 이상 집단훈련을 했다. 지휘·명령·전달 등은 철저를 기하기 위해 반드시 復唱하도록 하고, 단체훈련과 규율훈련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1942.4, <移入勞務者訓練及取扱要綱> <勞務動員實施計劃に依る朝鮮人勞務者の内地移入に就て> 《朝鮮勞務》 第2卷 第2號, 朝鮮勞務協會, 29-39쪽)

요배, 誓詞齊唱, ⑪22:00 취침. 學實科는 上記의 교수훈련과목인데, 신사참배·국체명징·체조·渡航上의 注意 등이 추가되었다. 이 훈련소는 1-6회까지 44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¹⁰¹⁾ 조선노동협회는 경상남도과 경기도에도 훈련도장을 설치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挺身報國思想과 皇國勤勞精神에 투철한 産業戰士를 연성했다.¹⁰²⁾

鐵鋼統制會와 같은 부문별 산업단체에서도 일본으로 동원되는 노동자를 연성했다. 황해도 의兼二浦에 세워진(1943年末 완공) 鐵鋼統制會朝鮮訓練所는 국가의 基幹노동자인 鐵鋼産業戰士에게 황국정신을 심어주고 일본의 생활양식에 숙달되도록 陶冶鍊成을 실시했다. 훈련생의 일과는 다음과 같았다.¹⁰³⁾ ①06:00 기상-朝點呼, ②06:30 조례-소장에 대한 경례, 국기게양, 신궁요배, 국가봉창, 칩어봉독, 무운장구기도, 고향에 대한 인사, 서사제창, 우리의 각오(우리 훈련공은 굳은 결의로써 모든 고통을 견디고, 군계 교훈을 지키며, 나아가 훌륭한 철강전사가 되어, 대동아전쟁에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낭송, ③07:30 朝食, ④08:30 연성, ⑤12:00 중식, ⑥13:00 연성, ⑦17:40 국기하강, ⑧18:00 석식, ⑨18:30 內務 禮儀作法, ⑩19:30 수양강의, ⑪20:30 夕點呼, 국민의회, 반성의 말(오늘 하루 가르침을 어긴 것은 없는가, 오늘 하루 노력에 부족함은 없는가, 오늘 하루 거짓말을 한 적은 없는가) 암송, ⑫21:00 消燈.

철강통제회조선훈련소의 정신교육의 주제와 자료는 교육칙어, 징병의 조서(1940.2.11), 한국병합의 조서, 戊申詔書, 청소년 학도에 내린 조서, 국민정신작흥에 관한 조서, 미국 및 영국에 대한 宣戰의 조서, 육해군인에게 내린 칙유, 戰陣訓 등이었다. 情操教育으로는 화분재배, 軍歌, 拜神行事, 靜坐法 등이 있었다. 學課로서는 일본어(조선총독부편찬 교과서에 의한다), 일본사(조선총독부편찬 교과서에 의한다), 수학 등을 배웠다. 術科로서는 徒手各個教練(부동의 자세 및 쉬어, 실내외의 경례, 우좌향 후향, 반우좌향, 駢足行進, 復命復唱의 요령, 速步에 의한 구족, 구족에 의한 속보, 속보행진, 높이뛰기, 物品授受, 傳令, 送傳의 요령, 연락병의 동작), 部隊教練(분대정돈요령, 伍의 중복 分解, 橫隊整頓, 閱兵分列行進要領, 方向隊形變換, 中대편성, 疏開教練의 초보, 中대의 방향 隊形變換), 도수체조(기본체조, 職技體操, 수류탄투척) 등을 익혔다. 작업으로서는 器具의 사용법, 농경작업, 토목작업, 제철작업의 개념 및 기초작업, 제철소 제작업 견학 실습 등이 부과되었다.

위와 같이 鐵鋼統制會朝鮮訓練所 入所生에게는 기상에서부터 취침까지 常住坐臥 모두가 훈련이고 연성인 日課가 4週間 매일 반복되었다. 그리하여 4주간의 훈련기간이 끝나면 입소 때와는 딴 사람으로 변모했다. 이 훈련소는 5회에 걸쳐 1200명을 배출했다. 그리고 1944년 3월부터 매일 600~700명을 훈련시킬 계획이었다.

징용으로 끌려가게 된 조선인 학생도 철강통제회조선훈련소와 비슷한 연성을 했다. 그들은 오전 6시 기상 사이렌에 따라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 朝點呼, 조례, 체련체조, 교련, 검술체조, 정신교육, 반성일기지도 등, 침상에 드는 밤 10시까지 쉴 새 없이 行의 연성을 되풀이했다.¹⁰⁴⁾

101) 荒金生, 1942.4, <全羅南道勞務指導員訓練所を視る> 《朝鮮勞務》 第2卷 第2號, 朝鮮勞務協會, 86-88쪽; 1942.6, <朝鮮勞務協會支部通信-全羅南道勞務指導員訓練所の概況> 《朝鮮勞務》 第2卷 第3號, 朝鮮勞務協會, 69-80쪽

102) 1943.2, <朝鮮勞務協會京畿道支部勞務訓練道場開所> 《朝鮮勞務》 第2卷 第6號, 朝鮮勞務協會, 79쪽

103) 山本友太郎, 1944.2, <半島勞務者の訓練-鐵鋼統制會朝鮮訓練所> 《朝鮮勞務》 第4卷 第1號, 朝鮮勞務協會, 7-10쪽

104) 坂下一郎, 1944.2, <徵用されし學徒の訓練生活を見ろ> 《朝鮮勞務》 第4卷 第1號, 朝鮮勞務協會,

4) 農民

조선총독부는 국가총력전체제에서 農業開發이 戰力增強에 직결되는 중요과제라는 점을 무척 강조했다. 그것을 상징하는 표어가 農業報國이었고, 실행방법으로 내세운 것이 勤勞精神醇化, 部落共同力結集, 勞動力供出, 農業生産組織合理化 등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解決하는 萬能手段으로서 동원한 것이 농민의 연성, 즉 皇國農道 昂揚運動이었다.

황국농도의 논리에 따르면, 황국 일본의 국토와 穀稷, 즉 社稷은 모두 皇祚神의 延長인 天皇이다스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사직은 단순한 물질 존재가 아니고 신의 소산이자 神意가 깃든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神聖不可侵한 이것을 奉護하고 斯業에 종사함으로써 大君에 忠義를 다하고 皇朝의 神寵을 받들어야만 했다. 그렇지만, 皇國臣民教育이 아직 半程度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조선농민에게 황국농도의 眞髓를 깨닫게 하는 것은 至難한 일이었다. 따라서 誠意와 良言으로써 설득하고, 窮理와 方法으로써 시행하여, 조선농민의 정신생활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농민연성이다. 농민연성을 위해서는 농촌진흥운동 이래 官公의 지도를 받아온 篤農・精農, 농민도장 등에서 양성된 중견청년, 육군지원병으로서 농민훈련을 받고 돌아온 재향군인 등을 활용하여 指導陣營을 구성해야 한다. 이들이 조선농민을 조직적으로 지도함으로써 황국농도의 이해와 농업보국의 실천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⁵⁾

조선총독부와 유관단체는 농민연성을 위해 전국에 농민도장을 개설했다. 농민도장은 농촌진흥운동을 추동하기 위해 만든 농민훈련소를 확대・강화한 것으로서, 1942年末 현재 道立 19, 部落會와 郷校財産이 세운 것 10, 사립 3, 단기 15, 부인 7 등 모두 54개소였다. 훈련기간은 1년(단기는 1개월), 수용인원은 30-40명이었다. 道場生은 소재지 郡守의 추천으로 선발했다. 日課는 대체로 오전에 學課와 實行의 기초훈련. 오후에 실습이었는데,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짝 짜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영농체험을 통한 日本農道精神의 注入을 가장 중시했다. 농민도장은 대개 논밭 10정보, 산림 10정보를 실습지로서 소유했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것은 道場內의 조합과 殖産契에서 처리했다. 道場生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한편, 독립의 擬制農家에도 分宿하며 농가경영을 실습했다. 그들은 매일 農舍(寄宿舍)의 神棚에 朝夕으로 예배하고, 도장의 神社 앞에서 아침마다 行事를 거행했다.¹⁰⁶⁾

농민도장은 농촌의 우량한 청년을 선발하여 합리적 영농을 배우게 하고 황국신민의 생활을 훈련시켜 농촌 지도자로 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충청남도 儒城의 농민도장은 도장생 5인을 한 가족으로 편성하여 모두 12호의 농촌부락을 구성하고, 실제 농가생활을 영위하면서 황국농도를 연성하도록 했다. 道場內에 大麻奉祀殿, 각 農家에 神棚을 두고, 아침저녁 예배하며 國體明徴, 敬神崇祖, 感謝報恩, 內鮮一體를 다짐하도록 했다.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신생활을 수련한

105) 1943.4, <皇國農道の昂揚と食糧増産> 《朝鮮行政》 246号, 230-238쪽

106) 1943.1, <座談會 鍊成を語る> 《朝鮮行政》 234号, 37-38쪽

것이다. 봄에는 祈年祭를 지내고, 가을에는 御殿에 初穂를 바치는 感謝祭를 올렸다. 매 17일에는 강당에 제단을 만들고 직원·생도 일동이 황국신민의 정신을 懇求하는 제를 올렸다. 생활쇄신에도 주력하여 책임 생산, 군수품 공출, 폐품 이용에 노력하고, 농촌오락으로서 줄다리기, 민요, 운동회, 품평회, 문고, 영화, 종이연극, 라디오, 축음기, 원예 등을 체험하기도 했다. 연성기간은 6개월이었다.¹⁰⁷⁾ 평안북도나 황해도의 농민도장에서 국체명징, 경신송조, 내선일체, 일본어상용, 육군특별지원병의 의의와 실천, 일본식의 풍속과 식사, 직업지도, 체력증진, 수양면학, 생활쇄신, 오락 등을 연성했는데, 모든 훈련은 황국신민으로서의 생활을 체험하는 것으로 歸一했다.¹⁰⁸⁾

決戰의 상황에 직면한 조선총독부는 농업생산의 증강에 골몰하기 위해 1943년 7월 農業増産實踐員을 전국 각 부락에 1명씩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부윤, 군수, 島司가 전형하고 도지사가 임명했다. 총 7만 명에 달하는 실천원은 皇國農道を 先導할 役軍이었다. 이들은 대개 농민도장, 보습학교, 조선총독부육군특별훈련소나 기타 훈련기관을 수료한 30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되었다.¹⁰⁹⁾

조선농민의 연성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조선농업보국청년대의 일본농촌연수였다. 조선총독부는 전국 농촌에서 선발한 중견청년을 청년대로 편성하여 일본농촌에 파견하고 1개월여 동안 영농생활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선진농법을 배우고 일본정신과 일본풍속을 체득하도록 했다. 일본에서 ‘內鮮間の 隣保相助’를 실천한 청년대원이 조선농촌의 지도자로 뿌리를 내리면 농업보국과 內鮮一體의 礎石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청년대 파견의 또 다른 목적은 징병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일본농촌을 돕는 데 있었다. 南總督은 조선농업보국청년대 결단식(1941.6.2)에서 다음과 같은 훈시를 했다.

첫째, 일본정신의 진수를 파악하라. 여러분은 선택되어 청년대원이 되었고, 내지에 파견되는 자이지만, 배속지에서 가정생활 및 환경을 통해 또 聖地の 巡拜에 의해 일본정신의 진수에 접해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견고하고 확실하게 하기 바란다. 둘째, 내선일체의 구현에 매진하라. 소집에 응한 농가에 배속중에는 행동거지를 신중히 하는 동시에 빨리 그 지방의 습속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여 내선일체 구현에 철저히 힘쓰기 바란다. 셋째, 不屈不撓의 정신을 왕성하게 하고, 어떠한 곤란도 극복하여 능히 사명을 완수하고 반도청년으로서의 이름에 흠이 되지 않도록 목숨 걸고 노력하기 바란다. 내지 농촌은 지금 많은 장병을 전장에 보냈고 또 부족한 자재를 극복하며 노인과 어린이가 모두 충후봉공에 임하고 있다. 여러분은 시종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땀을 통해 내지를 배워 한층 연성된 황국신민으로서 귀환하고 조선농촌을 위해 挺身報國의 정성을 다할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¹¹⁰⁾

위와 같은 사명을 띠고 전국 13도 농촌에서 선발된 중견청년 3백여 명은 1941년 6월 2일에 경

107) 趙宇植, 1943.5 <儒城農民道場を見る> 《東洋之光》 51-52쪽

108) 湯淺克衛, 1942.5, <ルポルタージュ 溫床の種々相一農民道場と女子訓練所> 《朝鮮行政》 제21권 제5호 ; 湯淺克衛, 1942.3, <ルポルタージュ 溫床の種々相一農民道場と女子訓練所> 《朝鮮行政》 233호 ; 湯淺克衛, 1942. 4, <ルポルタージュ 溫床の種々相一農民道場と女子訓練所> 《朝鮮行政》 234호

109) 1943.7, <朝鮮行政> 249호, 29쪽.

110) 《集成》 5, 488쪽, 492쪽. 小磯총독도 1년 후(1942.6.1)의 조선농업보국청년대 결단식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훈시를 했다.

성을 출발하여 7월 11일 경성에 도착할 때까지, 山口 廣島 岡山 島根의 우량농촌 13개소에 배속되어 1개월간 근로봉사를 했다.¹¹¹⁾ 小磯총독 이후에도 조선농업보국청년대의 연성은 石川縣, 長野縣 등에서 실시되었다.¹¹²⁾

조선총독부는 농민지도자에게 皇國農民道を 鼓吹하는 것이 식량증산과 농민연성을 촉진하고 내선일체를 구현하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전국 各道の 농민도장과 농업보습학교 직원 20명으로 農民道場職員鍊成隊를 조직하여 長野縣諏訪郡八ヶ岳中央修鍊農場(農村更生協會經營)에 파견하였다. 흙을 통해 農魂을 鍛鍊함으로써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이었다. 이들의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1943년 5월 1일 경성 출발, 5월 3일 八ヶ岳修鍊農場 도착, 6월 2일까지 연성, 6월 3일 宮城, 明治神宮, 靖國神社 참배, 6월 4일 일본농업대학 견학, 6월 5일 山本元帥 國葬 日比谷沿道에서 送葬, 귀국 도중 岡崎市の 追進農場 견학, 京都의 桃山御陵 참배, 6월 9일 京城 도착. 八ヶ岳修鍊農場은 標高 1300미터 고지에 위치했는데, 1년간 연인원 2만 명 이상이 연성하면서 35정보를 경작했다. 연성의 日課는 ①05:00 기상, 조례, 일본체조, 작업, ②07:00 조식, ③08:30-11:30 작업, ④12:30 晝食, ⑤13:30 작업이었다. 연성은 황국신민으로서의 氣魄을 심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 있었다. 朝食前 찬 계곡물로 禪하고, 3리를 驅步했다. 耕作 중에는 묵묵히 일만 했다. 작업은 주로 개간, 拔根, 新田갈이, 마령서·玉蜀黍 植付, 麥田의 追肥, 흙넣기. 등이었다. 연성은 당초 勤勞一本에 의한 심신연마가 중심이었으나, 최근 學課도 함께 익혔다. 다만 정신적인 것, 즉 古事記 등의 고전과 偉人의 遺訓 등 일본정신에 관련된 연성이 많은 것은 여전했다.¹¹³⁾

1940년부터 1944년까지 일본에 파견된 조선농업보국청년대 3천여 명에 달했다. 당초에는 매년 백 수십 명 규모였으나 나중에는 7백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4개 縣에 분산 배치되어 황국농도의 체득과 내선일체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위해 비지땀을 흘렸다.¹¹⁴⁾

5) 女性

조선총독부는 여성의 연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특히 어머니의 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관점에 따르면, 조선인의 人生觀·世界觀에는 유교사상이 깊게 배어 있어서 일본인과 같은 忠孝一本의 道義, 즉 천황에 忠義를 다함으로써 孝를 이룩한다는 道德意識이 아직 충분하지 못했다. 그 배경의 하나가 부모교육, 특히 어머니교육의 결핍이었다. 일본에서는 어머니가 군대에 나가는 자식에게 기쁘게 갔다 오거라, 忠義를 다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세상에 낯을 들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사회의 큰 道義 雰圍氣이지만, 조선에서는 몸이 아프다든가 집에 일할 사람이 없다든가 핑계를 대며 군대에 내보내지 않으려 한다. 이것은 一朝一夕에 고쳐질 수 없지만, 사회교육 특히 어머니교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조선총독부의 견해였다.¹¹⁵⁾

111) 朴鍾秀, 1941.9 <營農의 內鮮交驩> 《조광》 제7권 9호, 70-76쪽

112) 金澤滿 (朝鮮農業報國青年隊慶北班長), 1943.7, <皇農に生きる一石川縣福興村から一> 《朝鮮行政》 249호, 30-39쪽 ; 1944.2, <農業技術員の修鍊> (農業技術員修鍊所職員内地鍊成報告座談會, 2월 5일, 本府제2회의실), 《朝鮮行政》 23-2, 2-9쪽

113) 階川綴字, 1943.6, <八ヶ岳農場の體驗を聽く> 《朝鮮行政》 248호, 34-38쪽

114) 樋口雄一, 1998, 《戰時下朝鮮の農民生活誌 1939-1945》 240-243쪽

115) 1943.1, <座談會 鍊成を語る> 《朝鮮行政》 234호, 29-30쪽

조선총독부는 농민도장의 설치와 더불어 농촌중견부인훈련소를 설치했다.¹¹⁶⁾ 차세대를 양육할 여성을 양성함으로써 根底에서부터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충청남도 농촌중견부인훈련소(大田과 儒城의 중간에 위치)는 젊은 여성을 입소시켜 農事와 育兒 등의 家事를 가르쳤다. 그리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어머니의 行’을 敎習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였다. 育兒法, 원예, 금전수납부 정리, 위생, 요리법 등, 어머니로서의 생활을 교육했지만, 교육의 중점은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농민에게 시집가더라도, 남편·가정·부락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견부인을 육성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일본어 학습, 常會 등의 안건을 이해할 수 있는 時局認識, 共同作業 참가 태도, 국민의례 등을 중시했다. 입소생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논밭을 가꾸고, 인근의 어린이를 돌보았다. 훈련기간은 11개월이었다. 졸업생의 半은 농가에, 半은 관리에 시집갔다. 훈련생 30인의 구성을 보면, 自作農의 딸 6인, 小作農의 딸 5인, 自小作農의 딸 18인, 官公吏의 딸 1인으로서, 대체로 농촌의 중견치녀였다. 부인훈련소는 실생활 훈련이 학교에 비해 훨씬 철저했기 때문에 결혼신청이 쇄도한다는 평판을 얻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반수에 해당하는 여성을 양성하지 않으면, 남성을 아무리 훌륭한 황국신민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內鮮一體를 이룩할 수 없다고 보았다.¹¹⁷⁾

조선총독부는 징용·징병 등으로 남성의 동원이 확대되자 여성노동력을 개발하고 이를 양성하기 위해 1944년 4월 1일부터 전국 府邑面에 朝鮮女子青年鍊成所를 설치하였다.¹¹⁸⁾ 그리하여 16-17세까지의 국민학교 未就學 未婚 여성은 이 훈련소에서 연간 600시간의 황국신민화 교육을 받게 되었다. 조선이 臨戰態勢에 卽應하기 위해서는 이제 婦女子도 직접 盡忠奉公에 挺身해야 한다는 게 조선총독부의 방침이었던 것이다.¹¹⁹⁾

6) 官公吏

관공리는 일본의 조선지배를 관철시키는 支柱이자 神經이라고 할 수 있다. 戰況이 악화되어 조선에서 총동원체제가 강화되면 될 수록 관공리의 역할은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나 국민총력조선연맹 등은 관공리의 연성에 주력했다.

小磯총독은 府尹 등과의 회동(1943.3.6)에서, 전국의 관공서가 이번 달부터 일제히 연성에 돌입한다고 선포하고, 관공리는 집단훈련을 통해 沒我的 心境에 들어가 私心을 公心으로 바꾸고, 신체의 剛健을 꾀하여 氣魄을 왕성하게 함으로써 皇道 行者로서의 본질을 배양하라고 지시했다.¹²⁰⁾ 小磯총독은 또 도지사회의(1943.4.6)에서, 관공리의 연성을 위해 조선총독부지도자연성소

116) 여성을 수용한 농민도장이 설치된 것은 1939년부터였다. 조선총독부 농림국은 1940년12월에 장기부인훈련소 11개소, 단기부인훈련소 7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입소자격은 17세부터 22세까지의 독신여성이었다. 1942년 3월 현재 6개도에 설치되어 210명을 수용했다. 그리고 1941년 5월에는 각도에서 여성지도자 160명을 선발하여 岩手縣 六原農民道場에 파견하여 연성했다(樋口雄一, 앞의 책, 232-233쪽).

117) 湯淺克衛, 1942.2, <ルポルタージュ 溫床の種々相一農民道場と女子訓練所> 《朝鮮行政》232, 13-18쪽

118) 鍊成課, 2000, <朝鮮女子青年特別鍊成所ノ概況>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22(民族問題研究所 編), 韓國學術情報株式會社, 227-228쪽

119) 1944.3, <朝鮮女子青年鍊成所規定制定さる> 《朝鮮》346호, 92-94쪽

120) 《集成》6, 156-157쪽

를 설치할 것이므로 각도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지방지도자연성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¹²¹⁾ 小磯 총독은 대일본제국의 중추를 이루는 관공리야말로 연성을 통해 皇軍將兵과 같이 一身一家의 私情을 넘어 오로지 現人神 天皇을 받들어 大東亞共榮의 大義를 실현할 수 있는 자질을 체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¹²²⁾

조선총독부는 ‘수양연성의 철저적 실천요강’을 제정하고 1943년 3월 1일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연성의 대상자는 관공리, 민간의 간부와 간부가 될 사람, 주요 회사·은행·조합·공장·광산·사업장의 직원,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생도, 관공리 양성기관과 類似機關에서 수업중인 자 등이었다. 학무국 연성과가 일체를 통제하되, 관공서·단체·회사·공장·광산·사업장 등의 간부는 스스로 진두에 서서 決戰의 자세로 연성을 推動해야만 했다. 조선총독부는 1944년부터 경성에 皇道修鍊院을 개설하여 官民의 수양연성을 지도하는 한편, 附設道場의 지도자를 직접 연성했다.¹²³⁾

관공리 연성의 구체적인 모습은 경성 近郊의 駱駝山山麓에 위치한 京畿道修鍊道場(1942.8.31 준공)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¹²⁴⁾ 경기도는 1941년 6월부터 11월까지 6회에 걸쳐, 朝鮮總督府 敎學研修所를 차용하여, 各府郡 職員の 士氣鍛鍊會를 개최한 바 있었다.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1943년 2월 22일 小磯총독의 참석 아래 전용 수련도장을 개소하고, 제1회 수련생으로서 경기도내 各 府郡의 국민총력 사무담당 屬官, 동 촉탁 40명을 입소시켜, 禊行을 중심으로 5일간 연성을 실시했다. 그 후 한 달여 동안 9회에 걸쳐, 道廳內 內務産業部 各 과장, 各課 上席主任屬官, 府尹郡守, 各郡內務課長, 대일본부인회 경기도지부 간부, 읍면직원 등을 연성했는데, 기간은 단기 3일, 장기 5일이었고, 1회에 50명 내외를 수용했다.

경기도수련도장은 ①忠에 徹한다, ②士心を 기른다, ③誠을 啓한다 등을 鍛鍊綱領으로 내걸었다. 입소생은 敎士와 起居를 함께 하고 淸楚한 생활환경에서 엄숙히 行事·學課·研究를 행했다. 實習要目은 ①聖詔를 謹讀謹寫한다, ②明治天皇 御製를 拜誦한다, ③禊祓을 수행한다, ④단체훈련 및 근로작업을 한다, ⑤聽講參學한다, ⑥讀書尙友한다, ⑦自發研鑽한다 등이었다. 그리고 道場淸規로서는, ①襟懷淸明할 것-旦夕 神明을 拜하고, 澄身正身, 항상 淸明心으로써 求道精進할 것, ②坐作禮讓일 것-道友 서로 乳水와 같이 相和하고, 坐作言動이 정말로 禮儀輯讓 일 것, ③規律節度 있을 것-知行은 不二다, 百行 모두 當節을 잃지 않고 威儀端正할 것, ④寢食 宜에 적절할 것-食은 報本反始의 생각으로 이것을 받아 끝까지 咀嚼하고, 잠잘 때는 허공과 같이 深淵과 같이 될 것, ⑤道場을 淨護할 것-도장은 우리의 심신이다, 더럽혀서는 안 되고 훼손해서도 안 된다, 마땅히 항상 淸淨할 것 등을 내세웠다.

경기도수련도장 입소생의 생활은 마치 日本神道の 宗教寺院에 修練修養하는 것과 흡사했다. 그들의 日課는 다음과 같았다. ①05:00 기상, 군대식의 엄격한 규율 아래 日朝點呼, 洗面, 禊, 朝拜, 淸掃 등, ②08:00 朝食(5勺-흡의 10분의 1, 순가락 같은 국자-의 죽, 梅干 2개, 胡麻 소금 소량), ③09:00-13:00 聽講參學(1단위 2시간씩), ④13:00-16:00 行修(禊, 拜神), ⑤17:00 夕食(5勺-흡의 10분의 1, 순가락 같은 국자-의 죽, 梅干 2개, 胡麻 소금 소량), ⑥18:00-20:00 聽講參學 혹은 연습, ⑦20:00 夕拜, ⑧21:00 日夕點呼, 就寢, ⑨22:00 消燈.

조선총독부가 한 순간의 틈도 없이 연성을 해서 육성하려는 官公吏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121) 《集成》 6, 202쪽

122) 《集成》 6, 393쪽

123) 《集成》 6, 132-133쪽

124) 本田忠吉, 1943.4, <京畿道修鍊道場訪問記> 《朝鮮行政》 246호, 225-229쪽

것일까? 그 목표는 천황의 존엄한 위세를 畏敬하고 祖先의 엄숙한 遺風을 거울삼아 성심껏 皇國의 道를 닦으며, 盡忠至誠・滅私奉公에 힘써 皇國日本の 새로운 생활을 朝鮮에 건설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다.

3. 朝鮮人の 對應

1) 協力

황국신민의 연성은 조선통치의 모든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도 意識과 生活의 전반에 걸쳐 실로 다양했다. 다만, 이 글에서는 紙幅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연성이라는 용어와 직결되는 範圍內에서, 대응의 유형을 協力・同化・逸脫・抵抗으로 나누어 각각 한두 가지 사례만 소개하는 데 그치겠다.¹²⁵⁾

조선총독부와 그 운동조직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국민총력조선연맹 등은 황국신민 연성의 추진 주체였다. 따라서 그 조직에 속한 조선인 관리나 간부 그리고 말단 지도자 애국반장 등은 모두 일본의 협력자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국가총력전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본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皆中에는 率先垂範하려고 애쓴 사람도 있었다. 各道의 조선인 知事가 그러했다.¹²⁶⁾

忠淸南道知事 金川聖은 조선총독부가 국민총력이나 臣道實踐 등에 대해 아무리 통첩을 남발한다 하더라도 부락의 조선인 중에 일본이 지금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좋은 부락이라야 2-3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무관심한 대중을 연성하기 위해서는 관청만능주의로는 불가능하고 애국반을 이용하여 직접 가정 속으로 파고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국반을 황국신민 연성에서 빼요 수족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1940년 11월 1일을 기해 관할 구역에 일제히 애국반을 조직하고, 스스로 시범을 보이면서 지도에 나섰다. 조선 전체의 지도자는 총독이고, 그 一翼을 담당하는 것이 도지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의 가족은 아침 사이렌 소리에 일제히 기상하여 세수한 다음 일렬횡대로 정렬하여 東天의 천황을 생각하며 엄숙히 궁성요배를 했다. 그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아침이나 하루도 이것을 빠트린 적이 없어서 조그만 아이까지도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자랑했다.

황해도지사 金村泰男, 全羅北道지사 李家源甫, 平安北道지사 高安彦, 全羅南道지사 武永憲樹 등도 위와 비슷한 협력을 했다. 전라북도에서는 각 학교에 청년훈련소를 설치하여 황국신민 연성의 內實을 기했다. 평안북도에서는 1941년 2월부터 多獅島築港工事場에 國民總訓練勤勞道場을 개설하여, 17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40일간 정신훈련, 건전오락, 체력단련, 국방훈련 등을 실시했다. 전라남도에서는 일본정신의 주입에 가장 주력하여 每戶마다 大麻를 奉齊하고, 야학 등에서 일본어강습을 받도록 강요했다. 小磯總督은 조선인이 황국신민이 되고자 연성에 연성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일본과 동아시아에 널리 선전함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합리화했다.¹²⁷⁾

125) 조선인이 황국신민화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변은진, 2002, <일제의 식민통치논리 및 정책에 대한 조선민중의 인식(1937-45)>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4, 독립기념관을 참조할 것.

126) <우리 道の 新體制> 《조광》 제7권 3호, 1941.3, 288-312쪽

2) 同化

疾風怒濤와 같은 연성운동이 조선인을 얼마나 황국신민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조선인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황국신민의 人間像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시늉을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정보유통이 차단되고 미래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선민중이 강압을 수반하는 관민일체의 인간개조 캠페인을 거역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각종 훈련소나 수련도장에서强度 높은 연성을 한 청년 중에는 아래와 같이 同化的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¹²⁷⁾

조선농업보국청년대의 일원으로 1943년에 일본의 金澤市 근처에서 1개월가량 연성하고 돌아온 金澤滿은 隊員 모두가 일본의 團欒한 가정생활, 아름다운 공동작업, 식량증산을 위한 老若男女의挺身, 醇厚한 人情, 엄격한 자녀교육, 탁월한 지도자의 자질, 철저한 神佛信仰,明快虛心한 言動 등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리고 配屬된 일본의 농촌이 ‘새로운 親戚’으로서 불려준 信義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그곳에서의 소중한 체험을 精魂에 담아 묵묵히 식량증산에 매진하고 敢然히 大君의 방패가 되는 것, 즉 일본농민의 모습을 그대로 고향의 농민 앞에 재현시키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配屬農家の 일본인은 종래 조선인이 대개 일본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겼다. 즉 일본정신과는 緣이 아주 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 조선농업보국청년대를 접하고는 조선인이 황국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선청년은 일본농가에 배속되어 먼저 出征軍人の 사진에 武運長久의 목도를 올리고, 空閑地에 甘藷의 싹을 심고, 雨天의 날에는 꼭 물을 주어 작물을 愛撫했다. 그렇게 열심히 태도는 일본민족으로서의 血潮가, 가족으로서의 열정이 조선인에게도 脈脈히 흐르고 있다는 증거였다. 일본인은 조선청년의 和氣靄靄한 모습을 보고 조선농업보국청년대가 목표로 내건 內鮮一體가 실현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고 한다.

軍務豫備訓練所에서 연성한 平山・高野・月城・高山 등의 조선인 청년은 이곳에서의 40일 훈련이 국민학교 4년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들은 이곳에서의 정신적 훈육을 통해 협동과 단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 배운 것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입소생의 대부분이 가난한 벽촌 출신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지도 모르겠으나, 연성을 통해 황국신민으로 변모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¹²⁹⁾

小磯총독도 겉으로 드러나는 조선인의 변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1943년 7월에 일주일간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를 순시한 소감에서, 각 도 사이에 다소 逕庭은 있지만 대체로 조선인이 進擊潑刺과 수양연성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의 눈으로 보건대, 視察中에 堵列해서 出迎해준 사람들의 자세・태도・눈빛에서 확실히 연성의 성과가 躍如했다는 것이다.¹³⁰⁾

127) 《集成》 6, 523쪽

128) 松田謙一郎, <朝鮮農業報國青年隊として中塩田村に學ぶ一長野縣に配屬せられて> 《朝鮮行政》 249号, 1943.7, 35-40쪽

129) <始興第三軍務豫備訓練所 第二期生座談會> 《조광》 제10권 9호, 1944.9, 80-89쪽

130) 《集成》 6, 173쪽

小磯총독은 또 시무식 훈시(1944.1.4)에서 ‘修養鍊成의 效果面과 不及面’을 이렇게 평가했다. 조선인은 관민의 진지한 노력과 연성도장의 참가를 통해 姿容態度가 눈부시게 바뀌고 上下公私의 질서가 날로 잡혀서 一億一心의 기대를 갖게 되었다. 특히 학교의 지도연성과 청년훈련소의 특별연성이 가정에까지 효과를 미쳐, 家人이 기꺼이 청년을 道場에 보내고 청년·학도가 스스로 入隊를 자원한다. 따라서 조선에서 수양연성의 효과는 점차 궤도에 오르고, 조선인도 국체본의를 파악하여 국가총력전에 상응할만한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지만 朝鮮在住 일본인 중에 조선인이 隊伍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집하고, 조선인 중에서도 차별대우를 완전히 철폐하여 內鮮無差別의 一體化를 강변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면, 조선인의 수양연성 효과는 入門의 域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小磯총독은 조선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鍊成하는데 골몰했던 것이다.¹³¹⁾

3) 逸脫

학교는 교육의 체계와 방법이 全一的으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황국신민 연성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부문이었다. 그렇지만 조선인 학생은 본능적으로 연성의 허위성을 실감하고 일부러 황국신민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조선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과 함께 근로동원에 나가거나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생각과 자세는 서로 달랐다.

京城中學의 일본인 학생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일본인 학생은 陵谷의 勤勞動員에서 선생님과 함께 흠투성이가 되어 땀을 흘린 것을, 師弟同行하여 全心全力으로 奮闘한 人間育成的 實踐道場이라고 평가했다. 當局이 입버릇처럼 강조한 근로동원의 연성 效果를 그대로 믿은 것이다. 그런데 조선인 학생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등짐을 지다가도, 휴식신호가 떨어지면, 길가 등에 주르륵주르륵 짐을 쏟아놓고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이것을 본 일본인 학생은 조선인 학생이 마치 서서 오줌 누는 것과 같은 감각으로 근로동원에 임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교활하고 게으른 조선놈들에게 內鮮一體라든가 국가총력전이라든가 학도동원이라든가를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의식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¹³²⁾ 京畿公立中學校의 조선인 학생들은 金浦飛行場건설 공사에 근로동원되었는데, 作業을 怠慢히 한다고 일본인 교사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하자 그에게 때를 지어 돌맹이를 던져 京城으로 쫓아 보냈다.¹³³⁾

조선인 학생은 황국신민 교육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金壽煥 樞機卿은 東星商業學校 졸업반(1940년, 18세) 때 윤리시험에서, ‘일본천황의 勅諭를 받은 황국신민으로서 그 소감을 써라’라는 문제가 나오자, 민족적 자존심과 젊은 혈기로 반항심이 요동쳐서, 한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다가 종이 울릴 무렵 찔막하게, ①나는 황국신민이 아님, ②따라서 소감이 없음이라고 썼다고 한다.¹³⁴⁾ 일본 中央大學에 다니다가 학병에 끌려갔던 劇作家 韓雲史는 京城府民館에

131) 《集成》 6, 476-477쪽

132) 高橋幹也, 2003.7, <夏のコンサート> 《潮流》 第8号, 92-94쪽 ; 조선인 학생 중에는 매일 계속되는 근로동원에 염증을 느끼고 학교와 교사를 미워한다거나 아예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다(유종호, 2004, 《나의 해방 전후 1940-1949》 민음사, 72-73쪽).

133) 京畿九十年史編纂委員會, 1990, 《京畿九十年史》 京畿高等學校同窓會, 189-190쪽

134) 2004.2.5, 《중앙일보》

서 열린 壯行會에서, ‘총독은 우리가 나간 뒤에 조선인 2천 5백만 명의 장래를 확실히 보장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대답해 주기 바란다’고 小磯총독에게 따졌다가, ‘그런 것을 의심하는 자는 황국신민으로서의 훈련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¹³⁵⁾ 당시 京畿公立高等女學校 학생이었던 英文學者 羅英均의 회고에 따르면, 조선인 학생이 볼 때 일본인의 습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은 바로 천황에 대한 지나친 禮이었다. 교장이 하얀 장갑을 낀 두 손으로 勅書를 머리 위까지 높이 쳐들고 걸어가는 것은 솔직히 꼴불견이었고, 신사 앞에서 손뼉을 치고 절을 하는 것도 관객의 호기심으로 바라볼 일이지 정색을 하고 조선인 학생이 따라할 일은 아니라고 보았다.¹³⁶⁾ 조선인 학생의 위와 같은 생각과 행동은 일본의 황국신민화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연성의 취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다. 아니 소극적인 저항 혹은 逸脫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황국신민 연성에 대한 조선민중의 광범한 이탈은 각종 통제법령의 위반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¹³⁷⁾ 경제법령 위반으로 경제경찰과 검사국의 처분을 받은 조선인 수는 1940년 이후 급증했다. 그 배경에는 식량·섬유제품 등 생활필수물자의 수급 꺾박, 민심의 불안 증대, 말단배급통제의 불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경향 등이 있었지만, 황국신민의 연성이 제대로 되었다면 극복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그렇지만 조선민중은 전쟁은 일본인이 하는 것이고 조선인은 암거래를 해서라도 배불리 먹어야겠다는 심사였으며, 경제경찰의 단속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적대적 내지 반일적 언동과 태도를 보였다. 조선인의 노무동원이 집단모집(1939.9 개시), 관알선(1942.3 개시), 징용(1944.9 개시)으로 강화되어가자 노무관계법령의 위반도 증가했다. 예를 들면 동원대상이 된 조선인 중에 전형에 출두하지 않거나 노무동원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심지어는 작업장에서 도망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저항을 시도했다.¹³⁸⁾

4) 저항

조선총독부는 학생의 체력단련과 전투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1939년부터 전국에서 戰力增強國防競技大會를 개최했다. 경기종목은 早驅繼走, 團體障礙物競走, 非常召集, 擔架繼走, 土壤運搬繼走, 手榴彈投擲, 줄다리기, 連絡競技, 輜重任務 등 忍苦鍛鍊과 實戰實技에 도움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¹³⁹⁾

조선인 학생이 황국신민의 연성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저항한 사례로서는 부산 東萊中學校 등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¹⁴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회 대회(1940.11.23)에서, 심판을

135) 2004.2.11, 《중앙일보》

136) 나영균, 2004,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출판사, 205쪽

137) 松田利彦, 2002, <總力戰樹の植民地朝鮮における經濟統制法令の整備と‘犯罪’> 《世界の日本研究 2002》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138) 《集成》 6, 622쪽

139) 學校體育과 國防訓練 등의 강화 과정에 대해서는 西尾達雄, 앞의 책을 참조할 것. 大野政務總監은 각도 학무과장 및 視學官 회의(1939.5.29) 훈시에서, ‘체육의 목적이 신체운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국가의 負擔에 견딜 수 있는 국민의 연성을 기도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渡部學編, 1987,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14, 龍溪書舍, 479쪽).

14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釜山學生抗日義舉紀念論集編纂委員會, 1992, 《釜山學生抗日義舉의 再照明》을 參照할 것.

독점하고 있던 일본인 官吏와 配屬將校는 민족차별과 부정관결로 조선인 학생의 怨恨을 샀다. 실력에서 우세한 東萊中學校(朝鮮人學校)를 제치고 釜山中學校(日本人學校)를 優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審判長은 慶南地區衛戍司令官 및 釜山地區兵站司令官을 맡고 있던 乃台兼治大佐이었다. 동래중학과 釜山二商의 학생을 주축으로 한 조선인 학생은 閉會式의 엄숙한 분위기를 깨고, ‘엥터리십만 취소하고 민족차별 없애라’ ‘무엇이 內鮮一體인가’등의 구호를 외치며 抗議絶叫했다. 그리고 일본국가를 제창할 때 朝鮮民謠 등을 불러 응수하고, 천황폐하만세를 삼창할 때 ‘젠자이’(단팔죽, 萬歲=반자이를 야유하는 학생의 隱語)를 외쳐 대항했다. 그리고 일본인 학생에게 投石과 毆打를 시작하여 장내는 修羅場이 되었다. 일본의 경찰과 헌병도 氣勢에 눌려 제지할 수 없었다. 일본인 장교와 관리는 대부분 逃走했다. 조선인 학생은 ‘조선독립만세’ ‘일본놈 죽여라’ 등을 외치며 시내행진을 하고, 乃台兼治大佐의 官舍를 습격하여 창문과 가구 등을 파괴했다. 이 사건으로 조선인 학생 2백여 명이 검거되고, 15명이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명으로 拘禁送致되어, 二審까지 가서 11명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 중 2명은 滿期出獄 후 1개월 안 되어 獄苦로 사망했다. 학교에서 처벌을 받은 학생은 동래중학이 73명, 釜山二商이 32명이었다.

所謂 ‘노다이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동래중학 등에서는 황국신민의 연성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다. 천황과 황후의 사진을 수납한 ‘奉安殿’ 앞에 대변을 본 죄로 불잡혀 1년 6개월의 징역을 산 학생도 있었고, ‘朝鮮獨立黨’ ‘殉國黨’등의 비밀결사를 만들어 총독의 암살, 군사시설 파괴, 군용열차폭파, 일본인 집단거주지 방화 등을 계획하다가 검거되어 해방까지 감옥살이를 했다. 이처럼, 조선인 중에는 황국신민의 연성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며 조선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고수한 경우도 많았다.¹⁴¹⁾

IV. 맺음말

일본은 중일전쟁 이후 戰局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국가총력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조선의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했다. 즉 국가가 전쟁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물적 자원의 생산과 인적 자원의 능력을 量과 質의 면에서 최대한 확충·개발하여 강제로 동원·배치하였던 것이다. ‘국가총동원법’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이고, ‘국민총력조선연맹’ 등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官民動員運動이었다.

일본은 국가총력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국가총력전이 요구하는 인간형은 고도의 군사력과 노동력을 지탱할 수 있는 신체조건과 과학기술능력 및 정신력을 갖춘 인간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천황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황국신민’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인간형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종래 억압과 착취 및 차별의 대상이었던 ‘조선인’을 ‘八紘一宇’의 聖戰 이데올로기

141) 식민통치말기의 비밀결사운동 등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변은진, 2001, <일제말 비밀결사운동의 전개와 성격, 1937-1945>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를 참조할 것.

에 투철한 ‘일본인’으로 개조하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그 방법으로서 내세운 것이 바로 ‘황국신민의 연성’이라는 슬로건이었다.

당시 조선사회를 風靡했던 ‘鍊成’이라는 말은 일본형의 국가총력전 상황과 결부되어, 不撓不屈의 자세로 황국신민의 자질을 갈고 닦아 內鮮一體의 理想을 실현한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었다. 일본은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연성하기 위해 경제·노무·사상 등의 면에서 각종 통제법령을 발포했고, 조선총독부의 기구를 간편화·집중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으며, 국민정신총동원운동조선연맹·국민총력운동조선연맹·조선국민의용대 등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학생·청년·노동자·농민·여성·관공리 등을 修練道場에 수용하여 특별연성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연성이라는 말이 맹위를 떨친 기간은 5-6년에 지나지 않지만, 조선인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인은 마지못해서라도 황국신민으로서 변신하는 몸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강도 높은 연성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선인이 곧이곧대로 황국신민이 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인은 상황에 따라 협력·동화·일탈·저항 등의 방법으로 연성운동에 대응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다. 그리하여 일본이 패전하자마자 조선인은 곧바로 일본인과는 다른 민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할 수 있었다. 다만 연성의 취지가 너무 광범하고 또 그 방법이 무척 강렬했기 때문에 황국신민의 연성이 一場春夢으로 끝난 것만은 아니었다. 조선인이 연성에서 체득한 思考·技能·態度·行動 등은 남북 분단국가의 건설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選擇적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다. 오늘날까지도 南北韓에서 膾炙되고 있는 植民地殘滓의 대부분은 ‘황국신민의 연성’과 관련된 事案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⁴²⁾

142) 鄭根植, 2004.1, <植民地支配・身體規律・‘健康’> 《生活の中の植民地主義》人文書院에서 이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했다.

[비평문]

모리야마 시게노리

본 연구는, 국가 총력전 체제기인 1937년에서 45년까지 추진된 총동원과 황국신민화정책을 <鍊成>이라는 교육·정책 목표에 주목하여, 그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우선 서문에서, 본 연구의 시각과 방법이 제시되고, 또 <鍊成>이라는 개념이 조선에서는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든다>, <황국신민으로 개조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지상 목표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해방 후에도 영향력을 남겼기 때문에, 이 동태적 개념의 활용은 적절하다고 표명하고 있다. 이하, 그 목표로 한 인간상 및 그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을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강조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총력전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이 <도구형 인간>이며, 그 강화는 황국신민의 <鍊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나, 그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었다.

둘째, <鍊成>을 목표로 한 인간형이란, <고도한 군사력과 노동력을 지탱할 수 있는 신체조건과 과학기술능력 및 정신력을 갖춘 인간>, <천황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황국신민>>이며, 이를 육성하는 방법이 <陶冶鍊成>이라는 인간개조였다.

셋째, <鍊成>운동이 애국일행사, 국민생활일, 애국반상회, 大詔奉戴日, 鍊成日로 변화하면서, 이 연성일에 誓詞 제창 등 다양한 행사가 행해지며,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넷째, <鍊成>운동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제1차 대상인 학생에게는 <황국의 길>로 귀일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내용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었고, 特別鍊成所에서는 청년들에게 징병·징용을 전망하면서 이 운동을 실시하였고, 노동자들에게는 근로보국운동 및 일반연성 그리고 특별연성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철저한 훈련·동원이 이루어졌으며, 농민은 농업청년보국대로서 皇國農道昂揚운동 및 일본농촌연수에 동원되었으며, 여성은 모친교육 및 농민증견부인훈련의 대상이 되었으며, 공무원들도 지도자연성소에서 수양연성에 종사하였다. 이리하여 <연성>운동은 부문별로 심화하였다.

다섯째, 조선인의 대응은 협력, 동화, 일탈, 저항으로 나뉘며, 실례로 협력의 사례로는 각 도지사의 주민강요와 합리화를, 동화의 예로는 청년들의 내선일체 노력을, 일탈로는 조선인 학생의 태만 및 통제법령 위반을, 저항으로는 중학교의 집단저항을, 각각 들 수 있고 다양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은 <鍊成>에 의해 아이덴티티를 상실할 위기를 체험하였으나, 결국은 황국신민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운동이 광범하였기 때문에, 식민지 잔재가 남은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일본이 실시한 총동원정책을 <鍊成>이라는 행동에 주목하여, 자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각을 한정하여 분석하였기에 본격적인 연구가 적은 분야에서 귀중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鍊成>이 의식과 생활 차원에서 일상적인 행동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확실히 <鍊成>이 표현하는 정책 및 행동양식은 국가총력전체제기의 전형이며, 대표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지배·통치정책과 논리적·현실적 양면에서 각각 어떠한 관계에 있었

는지는, 반드시 명료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鍊成>이, <창씨개명>등 황국신민화정책과 보완적이었는지는 논리적으로 명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차이점이나 구조적 특성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나아가 총독을 비롯한 총독부 담당자들이, 진심으로 <鍊成>을 생각했을까, 그들은 조선인을 일본인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만일,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드는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종래의 통치정책 특히 <동화정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같다고 한다면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틀리다면 <동화정책>과 모순 되지 않는가. 그것은 일본의 통치정책 자체를 묻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동화정책>과 다른 정책과의 논리적·현실적 관련은, 양립할 경우도 있고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며, 총체적으로 일본의 지도자들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관료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자료적 제약이 있겠지만, <鍊成>에 대한 실태해명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어쩐지 隔靴搔癢이라는 느낌이 있다. 일본측 자료를 가지고 실태를 재구성하는 이상, 계획단계의 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 실태가 어느 정도 해명되었는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본측의 의도와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없었는지,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많다.

이 점에서, 역시 통치정책 전체의 고찰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鍊成>을 자리 매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사명의 빈번한 변화는 정책담당자가 진지하게 고려한 결과인지, 아니면 관료적인 통치행위의 일상적·행정적인 행동양식의 결과인지 의문이다. 또 그 경우 관료적인 통치행위와 다른 정책적 행동과의 관련도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로, 조선인의 대응을 분류·구별하는 기준이 애매하다. <鍊成>이라는 행동양식에 따라서 분류·구별한다고 해도, 보다 학문적으로 조작 가능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관해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근대화에 대한 행동양식 분류 기준으로 마루야마마사오(丸山眞男)가 제시한 도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권력과의 거리와 집단화의 정도(응집성)라는 기준에서, 4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물론, 다른 설득력이 있는 유의미한 분석틀이나 분류 기준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분류하여 기술하는 것은, 자의적인 평가라고 비판받을 수 있겠다. 만일 적절한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의논하여, 공동연구라는 상호작용의 현장에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필자 답변]

나의 논문에 대한 모리야마교수의 요약과 논평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鍊成’은 전시체제기에 조선인을 진짜 일본인, 즉 천황을 위해 물자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황국신민으로 개조하려는 국가사업이었다. 그것은 종래의 동화정책을 계승한 측면도 있지만, 국가총동원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새롭게 추진한 인간 개조프로젝트였다. 총독을 비롯한 일본인 당국자는 ‘연성’의 성공과 효과를 半信半疑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연성’을 무한대로 확대해갔다. 둘째, ‘연성’은 꽤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전조선인의 국민운동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部門運動, 일상의 생활운동뿐만 아니라 道場의 修鍊運動 등으로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전쟁말기에는 ‘연성’이 너무나 광범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독특한 역할이 애매모호해지기도 했다. 셋째, 나는 ‘연성’에 대한 조선인의 다양한 대응을 협력·동화·일탈·저항으로 분류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류가 전시총동원체제기의 조선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류의 기준이 엄격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도 모리야마교수는 ‘연성’과 다른 지배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이 명료하지 못하고, 일본의 정책의지와 실제결과의 乖離如何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긍할만한 조언이다. 실증사료의 부족이나 이론구성의 미숙 등을 한일양국의 공동연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